

한국설교학회 2021년 가을 정기 학술대회 제8차 정기총회

■ 2021.11.20 (토) 오후 1:30 - 4:00

■ 설교자하우스 (리더십센터)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87번길 흥덕이씨티 B동 501

■ 현장 진행 + 온라인 진행 Zoom ID: 930 941 4738

발제 1



고난 중의 신자에 대한
설교자의 청중 이해

최광희
합신대 Th.D.

발제 2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 이해와 진정한 설교

박동진
McMaster Divinity
College Ph.D.

발제 3



존 웨슬리 설교에 대한
설교학적 관점의 연구

남모세
서울신대 Ph.D.

발제 4



고난 설교를 위한 설교학적
제안: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를 중심으로

서지마
Univ. of Pretoria Ph.D.

회장 : 서동원 박사 (목원대 은혜감리교회 담임)

선임부회장 : 이승진 박사 (합동신학대학원) 류원렬 박사 (평택대)

부회장 : 최진봉 박사 (장신대) 박성환 박사 (한국성서대)

총무 : 김병석 박사 (송실대) 부총무 : 윤성민 박사 (강남대)

서기 : 조지훈 박사 (한세대) 회계 : 김현애 박사 (장신대) 부회계 : 김용성 박사 (한신대)

감사 : 김윤규 박사 (한신대) 차장현 박사 (한신대)

■ 차례 ■

(2021.11.20.토. 13:30분 ~ 16:00시)

개회사 및 기도

사진촬영

신진학자 소개 및 발제

1. 고난 중의 신자에 대한 설교자의 청중 이해
(최광희 박사 / 합동신학대학원) ----- 4
2.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 이해와 진정한 설교(True Preaching)에 관한 연구
(박동진 박사 / McMaster Divinity College) ----- 18
3. 존 웨슬리 설교에 대한 설교학적 관점에서의 연구
(남모세 박사 / 서울신학대학교) ----- 34
4. 고난 설교를 위한 설교학적 제안-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를 중심으로
(서지마 박사 / University of Pretoria) ----- 51

휴식

제8차 한국설교학회 정기총회 ----- 67

총회 시작기도

총무 및 회계 보고
회칙개정

차기 회장추대

구 임원인사
신 임원인사

폐회기도 (신임회장)

◆ 광고 ◆

1.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국설교학회 제8차 정기총회 및 신진학자 소개와 발제를 열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기도와 후원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본 행사 장소를 제공해 주신 설교자하우스 정창균 전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한국설교학회장 서동원 박사님과 은혜감리교회 당회 및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한국설교학회 제7대 서동원 회장님 및 모든 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3.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한국 14호가 출간되었습니다. 본 학술지 출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4. 오늘 발제로 수고해 주신 4명의 신진 설교학자 박사님들과 본 행사 및 총회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 한국설교학회 홈페이지 및 논문투고시스템 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6. 한국설교학회는 연 2회(봄, 가을) 개최 됩니다.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고난 중의 신자에 대한 설교자의 청중 이해

최광희 박사(합동신학대학원/ 실천신학/ 설교학)

[국문초록]

고난 중에 있는 청중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궁금해하며 그 고난을 벗어나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한다. 한편으로 신자는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고난의 의미를 알고자 한다.

설교자가 고난을 겪는 청중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을 해석하는 여러 모델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신자가 겪고 있는 고난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잘 설명해야 한다. 설교자가 이 사역을 잘 수행할 때 신자는 고난이 유익임을 받아들여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된다.

설교자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고난을 겪고 있는 청중에게 다가가는 태도이다. 설교자는 고난을 겪는 청중을 판단하거나 가르치려는 태도보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설교자가 공감 능력을 기르는 데는 레비나스의 '타인의 얼굴' 개념이 요긴한 지침이 될 수 있다.

주제어: 청중 이해, 고난, 로고테라피, 언어의 기능, 신정론, 타인의 얼굴

I. 들어가는 말

청중은 하나님과 영생의 언약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존재이다.¹⁾ 청중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는 설교자의 설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청중은 종종 자신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 관계를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설교자의 설명에 따라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기가 곤란한 상황에 부딪칠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이 경험하는 사건이 자신이 들은 말씀과 모순되게 느끼는 현실 때문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까닭을 알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경험할 때이다.

고난의 정체는 무엇인가? 팀 켈러는 고난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라고 하면서도 많은 이들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께 다가가게 된다고 한다.²⁾ 그렇다면 여러 가지 까닭 모를 고난을 경험할 때 언약 백성인 청중은 그 고난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고난을 겪고 있는 청중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려면 설교자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며 설명할 것인가? 고난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 것 만이 아니라 고난을 겪는 청중에게 다가가는 설교자의 태도 역시 중요한데 설교자는 고난을 겪는 청중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발견하도록 돕기 위해서 어떤 태도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

때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마치 사람들의 고통에 관심이 없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설교자는 이런 상황에 관하여 어떻게 설교하여 신자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섭리 안에 있음을 설명할 것인가?

이 문제점에 대하여 연구자는 먼저 로고테라피 개념으로 고통의 의미를 생각해 본 다음, 대재앙과

1) 이승진, "청중에 대한 설교학적 이해," 『복음과 실천신학』 6 (2003), 63.

2) 팀 켈러/ 최종훈 옮김, 『팀 켈러, 고통에 답하다』 (서울: 두란노서원, 2018), 25, 16.

고난에 접근하는 각각의 모델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어 리스본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라이프니츠의 신정론이 부닥친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얼굴’과 ‘대속의 고통’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하나님의 침묵과 로고테라피

1. 고통의 문제와 하나님의 침묵

20세기 최고의 문호(文豪) 가운데 한 사람인 C. S. 루이스(1898~1963)는 남달리 많은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다. 그가 10살 되던 해에는 어머니가 암으로 별세하였고 그 후 그의 형은 술을 위안으로 삼다가 알콜 중독자가 되어 버렸다. 그런 상황을 겪은 루이스 자신도 대학에 진학한 후 신앙을 잃어버렸지만, 다행스럽게도 오랜 방랑 후에는 다시 회심하게 되었다. 그는 59세의 늦은 나이에 한 불행한 여인과 결혼하여 크나큰 행복을 느꼈으나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했으니 그의 부인은 3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³⁾

이런 많은 고통을 경험한 루이스는 자신만이 아니라 인류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게 되었다. 루이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민을 표출하였다.

만일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는 자신의 피조물이 완전히 행복해지기를 소원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가 원하시는 무슨 일이나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피조물들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이 부족하든지, 능력이 부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두 가지 다 부족한 것이다.⁴⁾

이렇게 의문을 던진 루이스는 하나님의 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인간의 고통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조화하는 문제는 인간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사랑이라는 글자에 통속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한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⁵⁾

하지만 루이스는 “고난들은 기본적으로 인간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에서 온 것을 인정하면서도 어찌서 하나님은 악한 인간들이 그 형제들을 그렇게 괴롭히도록 허락하셨는지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였다.⁶⁾

사람이란 타인의 고통보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크게 느끼는 존재이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큰 고통을 겪은 적이 있는 강정훈 목사는 이렇게 표현한다. “사람은 남의 배에 커다랗게 남은 수술 흔적보다 내 손톱에 낀 가시 자국이 더 아프다고 한다.”⁷⁾ 이처럼 청중은 각자가 누구보다 쓰라린 고통을 경험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고통에 대하여 루이스와 같이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런 질문에 대해 아무런 답을 주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켄 가이어(Ken Gire)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그의 책에 *The North Face of God* 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이는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은 자비로운 아버지가 아니라 에베레스트산을 오르는 등반가가 가장 오르기 힘든 북쪽 능선(the north face)처럼 냉혹하게 느껴진다는 의미이다.

켄 가이어에 의하면, 에베레스트 산은 여러 개의 능선이 있는데 그 가운데 북쪽 능선이 등반하기 가장 어렵다. 그런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마치 에베레스트 산의 북쪽 능

3) 홍치모, “C.S. 루이스의 생애와 사상 - 루이스의 작품과 신념 세계,” 『신학지남』 65/3 (1998/09), 206-10.

4) C.S. 루이스/ 김남식 옮김, 『고통의 문제』 (서울: 크리스천서적, 2001), 33.

5) Ibid., 63.

6) Ibid., 129.

7) 강정훈, 『내게 왜 이러세요?』 (서울: 두란노, 2021), 77.

선을 타고 등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⁸⁾

성경 인물 가운데도 고통을 겪은 인물들이 많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요셉이나 다윗은 긴 기간 동안 까닭도 모르고 그 끝도 모르는 고난을 겪어야 했다. 다윗은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부르짖은 후에 “내 하나님이며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탄식하였다.

모세는 요셉이나 다윗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버림받음’을 경험했다. 그 결과 모세는 자신의 꿈을 완전히 버리게 되었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찾아 왔을 때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소명을 거절할 정도였다. 캔 가이어의 말처럼, 성경 인물들은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난보다 그들이 당한 ‘하나님의 침묵’이 더 고통스럽게 느껴졌을 것이다.⁹⁾

2. 언어의 기능과 설교자의 사명

하나님은 이처럼 청중이 당하는 고난의 상황에서 침묵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셔도 설교자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 아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에 설교자는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말로 밝히고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사람에게 언어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이며 설교자가 부여받은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언어의 기능에 대하여는 발터 벤야민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발터 벤야민에 의하면 하나님은 옛세 동안 지으신 모든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말씀으로 만드는 대신 손수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드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그 말씀을 방출하심으로 사람에게 자신의 창조성을 위임하셨다.¹⁰⁾

하나님으로부터 말의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의 사명은 이 언어를 통해 ‘사물 언어’(language of things)를 ‘구술언어’(oral language)로 드러내는 것이다.¹¹⁾ 설교자의 사명은 우선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를 청중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청중이 경험하는 사건들과 고통 속에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의도를 구속사적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 역시 설교자의 중요한 사명이다. 이런 면에서 이승진 교수는 목회 사역의 핵심을 “구술언어와 사물 언어를 신자들 앞에서 서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명쾌하게 표현한다.¹²⁾

그렇다면 청중이 겪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 설교자는 어떻게 해답을 줄 수 있을까? 내세에 천국의 영광을 누릴 성도가 현실에서는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청중에게 설교자는 무엇이 라고 답을 제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는 청중의 질문에 설교자는 어디에서 해답을 확보하여 청중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해답을 성경에 담아 놓으셨기에 매번 새로운 말씀을 주지 않으시는 것뿐이다. 하지만 사람은 두 가지 이유로 그 해답에 접근하지 못한다.

우선, 고통이 없는 사람은 고통의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팀 켈러의 말처럼 인간은 “고난이 닥치면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제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해본 적도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¹³⁾

그러다가 막상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 순간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리처드 아스머는 자신이 목사요 실천신학 교수이면서도 모친이 교통사고로 갑작

8) 캔 가이어/ 마영례 옮김, 『하나님의 침묵』 (서울: 디모데, 2006), 20-21.

9) Ibid., 18.

10) 발터 벤야민/ 최성만 옮김,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번역자의 과제』 (서울: 길, 2008), 84.

11) Ibid., 78.

12) 이승진, “해석학적 실재론에 근거한 성경 해석과 설교 메시지의 전달 과정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54권 (2020), 223.

13) 팀 켈러, 『팀 켈러, 고통에 답하다』, 16.

스럽게 사망했을 때 몹시 당황하였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아스머는 고향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안정을 찾을 수 있었노라고 회고하고 있다.¹⁴⁾ 아스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청중이 고통스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 고통의 의미를 깨달을 마음의 여유가 없다. 그럴 때 성경적 관점에서 고통을 설명해 주어 고통으로부터 다시 일어서도록 하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이다.

3. 고통의 의미와 로고테라피

까닭 모를 고통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으며, 성도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설교자는 어떻게 해석해 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 연구자는 우선 고통에도 값진 뜻이 있다고 한 옥한흠 목사로부터 해답의 실마리를 확보하고자 한다. 옥한흠 목사는 고난을 겪을 때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아야 한다고 한다. 덧붙여 고통은 거룩한 것이며 대단히 신비스러운 것이라고 한다.¹⁵⁾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빅터 E. 프랭클의 설명을 들어보자.

빅터 E. 프랭클은 유대인 신경정신과 의사로서 악명 높은 나치(Nazi)의 아우슈비츠(Auschwitz) 수용소의 생존자이다. 그는 가진 모든 소유물을 빼앗기고 알몸 상태로 발가벗기는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말살되는 경험을 했다.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아무리 무서운 악몽일지라도 그 수용소의 현실보다 더 나쁠 수 없었다고 회상한다.¹⁶⁾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빅터 E. 프랭클은 “산다는 것은 고통스럽기 마련”이라면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라.”라고 한다.¹⁷⁾ 빅터 E. 프랭클이 창안한 로고테라피(Logo therapy) 개념에 따르면,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은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다. 그래서 빅터 E. 프랭클은 고통이란 그 의미를 찾아내는 순간 절대 고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바꿀 수 없는 운명을 만나게 되었을 때조차도 삶에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고통은 희생의 의미와 같은 어떤 의미를 찾는 순간부터 절대 고통이 아니며 인간은 자신의 고통에 의미가 있다고 확신하면 기꺼이 그 고통을 받아들이기까지 하는 존재이다.¹⁸⁾

그렇다면 언약의 말씀을 가진 존재인 청중은 고통으로부터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옥한흠 목사는 고난을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정의하면서 신자는 고난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라고 충고한다.¹⁹⁾ 또한, 하나님께서 고난을 성도의 유익을 위해 선용하신다고 주장한다. 그 선용이란 첫째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선용하시며,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을 형성하는 데 고난이 절대적인 요소가 된다.²⁰⁾

옥한흠 목사와 빅터 E. 프랭클의 설명을 종합해 볼 때 고통에는 고통보다 더 큰 의미가 있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 가는 데 유익하다. 그러나 신자가 막상 고난을 겪을 때는 그 상황을 성경적 관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고난을 경험할 때 청중은 고난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의 삶에서는 왜 실현되지 않는지 회의(懷疑)하게 된다.

그러므로 청중이 고난을 겪을 때 그 상황을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 설교

14) 리처드 아스머/ 김현애 옮김, 『실천신학의 네 가지 중심 과제』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12), 40-41.

15) 옥한흠, 『고통에는 뜻이 있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0), 234, 15-16.

16) 빅터 E. 프랭클/ 정순희 옮김, 『죽음의 수용소에서』 (서울: 제일출판사, 2000), 51.

17) Ibid., 10.

18)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 147-48.

19) 옥한흠, 『고통에는 뜻이 있다』, 11, 16.

20) Ibid., 18-19.

자의 역할이다. 그렇다면 설교자는 청중이 당하는 고통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해 줄 것인가?

III. 대재앙과 고난에 접근하는 모델들

1. 재난을 바라보는 설교자의 관점

신자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는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때로는 온 국가적으로 함께 당하는 대재앙도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여러 가지 정상(正常)이 비정상(非正常)이 되어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비정상(Ab-normal)이었던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새로운 정상(New-normal)의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다. 또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경제가 무너지며 코로나 우울증(Corona Blue)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한 백신(vaccine)에서조차 부작용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²¹⁾

이런 때에 신자들은 왜 이런 일이 왔으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묻고 싶어 한다. 코로나 팬데믹 외에도 세상에는 종종 대재앙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며 설교할 것인가?

역사적으로 볼 때, 대재앙의 의미를 해석하여 설명하는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리스본 대지진 사건 부터였다. 1755년, 전 유럽을 깜짝 놀라게 한 리스본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대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지 많은 논의와 패러다임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특히 당시 대지진이 의인 용이 당한 고난처럼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건하게 살았던 도시 리스본을 중심으로 발생한 사건이기에 성경적 설명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러면 대재앙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설교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먼저 2004년 인도네시아 지진 사건과 2011년 동일본에 지진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설교 사례를 살펴보자.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슈마트라 북부에서 모멘트 규모 9.1의 해저 지진과 15미터 높이의 쓰나미 재앙이 발생하여 28만 명 이상의 사망 및 실종자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발생 직후 한국 교회의 한 설교자는 성탄절과 주일이 연속되는 거룩한 날에 쾌락을 즐기려 간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징벌이 임했다는 관점으로 설교를 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관점의 설교는 공감대를 형성하기는커녕 교계 안팎에서 많은 질타를 받게 되었다.²²⁾

한편, 2011년 3월 11일에 일본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에서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와 강남교회 김성광 목사가 지진의 원인이 일본 국민의 우상숭배와 무신론, 물질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설교해서 역시 파문이 일기도 했다.²³⁾

이 두 사례를 통해 발견하는 것은 결국 대재앙을 선불리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해석하여 설교하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2. 고난을 설명하는 여섯 가지 모델들

그러면 대재앙에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른 관점인가? 이승진 교수는 재앙과 고난에 접근하는 모델로서 징벌적인 고난의 모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모델, 교육적인 고난의 모델, 대속적인 고난 모델, 신비적인 합일 모델, 종말론적 전망 모델 등의 여섯 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신자의 고난에 접근하는 여섯 가지 모델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⁴⁾

21) 광성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1건’ 추가,” 「청년외사」 인터넷신문(2021.07.26.) 접속 2021.08.05.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936>

22) 이승진, “대재앙에 대한 신정론 관점의 설교,” 「복음과실천신학」 29 (2013), 37.

23) 허호익, “리스본 대지진과 자연재해에 대한 신학적 쟁점,” 「신학과문화」 21 (2012), 119.

24) 이승진,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설교,” 「복음과실천신학」 35 (2015), 267-76.

1) 우선 '징벌적인 고난의 모델'의 관점은 고난의 중요한 원인을 당사자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보는 것이다. 욥의 친구들도 이런 인과응보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에 집요하게 욥에게 회개를 요구했다.

물론 고통에 대한 이런 관점도 필요하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죄를 범하는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징벌하시는 것이 사실이다. C. S. 루이스는 고통을 겪어 있는 세계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확장기로 본다. 루이스에 의하면 고통은 악인에게 개선의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영혼의 요새 안에 진리의 깃발을 꽂는 것이다.²⁵⁾ 그런데 오늘날 지성인들 가운데는 보응 사상이나 징벌 관념을 말소해 버리고 범인의 개과천선이나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 모든 징벌을 부당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²⁶⁾

하지만 모든 고난을 징벌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최후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범죄에 대하여 합당하게 징벌하시기보다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인간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예수님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민들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며 그들이 당하는 재난 사건을 교훈 삼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징벌적 고난의 모델은 모든 고난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2) 징벌적 고난 모델이 형평성과 일관성에서 모순점을 보이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대안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모델'이다. 이는 지금 당하는 고난을 반드시 자신의 죄악과 결부시킬 수는 없지만, 고난 저변(底邊)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하지만 이 모델은 고난의 의미나 가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막연한 미래의 가치로 무책임하게 희석한다는 약점이 있다. 이런 방식의 설명은 청중의 불평을 막는 효과는 있겠지만 고난 중에 처한 신자를 만족시키는 설명이라고는 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3) 징벌 모델과 섭리 모델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고난의 목적이 교육 혹은 연단을 위해서라고 설명하는 '교육적인 고난의 모델'이 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신자는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신앙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런 연단 후에는 죄에 빠질 가능성도 줄어들어 그에 따른 징벌을 미연(未然)에 방지하는 효과까지 생겨난다.

C. S. 루이스에 의하면, 만일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평안을 얻고 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식을 배울 것이며, 주님께 돌아가는 길을 망각하고 말 것이다.²⁷⁾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 영적인 훈련을 받음으로 천국 백성답게 성숙하여 간다는 이 설명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모델이다.

하지만 이 모델 역시 모든 고난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욥처럼 남달리 훌륭한 신자가 오히려 남보다 모진 고난을 받는 경우나, 고난을 통한 연단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 같은 유아들이 당하는 고난 등은 이 모델로는 설명하기 곤란하다.

4) 대속적인 고난 모델은 모든 종류의 고난에 대하여 설명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수고하다가 희생을 당한 경우, 혹은 자발적으로 고난을 자취(自取)한 경우에 대한 설명에 동원된다. 예를 들면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이나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던 사람이 오히려 사고를 당해 희생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를 위해서, 베냐민을 대신하여 벌을 받았다고 자칭한 유다의 경우처럼(창 44:33)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한 경우는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

하지만 대속적 고난 모델은 다른 사람의 죄나 실수로 피해를 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의 경우 이 모델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 모델은 특수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사용하면 좋

25) 루이스, 『고통의 문제』, 137.

26) Ibid., 134-35.

27) Ibid., 169.

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5) 신비적인 합일 모델은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기보다는 인간이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다. 신비적인 합일 모델에 의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을 선택하기 위해 전능을 포기하셨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전능을 포기하고 사랑을 택한 하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전능하시다는 것이다.

루터의 십자가 신학에 의하면 하나님은 오직 고난과 십자가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해서만 생각되어야 한다.²⁸⁾ 이러한 십자가 신학을 수용한 학자 가운데는 우선 본회퍼와 한스 요나스(Hans Jonas) 등이 있다. 본회퍼는 하나님을 전능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무력하게 고난당하는 분으로 설명한다.²⁹⁾ 한스 요나스 역시 하나님을 무능력한 하나님, 무저항의 하나님, 피조물로 인해 고통받는 하나님으로 설명한다.³⁰⁾

팀 켈러 역시 다음과 같이 십자가 신학을 옹호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고통과 악의 근원을 쳐부술 칼과 권세를 움켜쥐셨다면 인간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정의를 실현하는 대신 악을 견뎌 내셨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대신 받으셨으므로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인간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고도 악을 심판하실 수 있다.³¹⁾

팀 켈러에 의하면 “크리스천들이 역경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주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팀 켈러는 “주님의 고난을 강조하는 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거룩한 주권이라는 개념을 놓쳐 버리고 하나님을 무능력한 분으로 설명하는 신학자들도 갈수록 늘고 있다.”라면서 십자가 신학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고 있다.³²⁾

십자가 신학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신자가 고난을 겪을 때 거기에서 함께 고난을 겪고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고난을 제거하기보다는 인간과 함께 고난을 겪으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목적지를 향하여 점진적으로 피조물을 인도하신다.³³⁾ 그러므로 인간은 우리와 함께 고난 속에 계시는 하나님과 온전한 합일을 이루는 신비적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신비적 합일 모델의 설명이다.

이 모델은 고난 속에서 신음하는 신자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포기하고 무력하고 힘없는 하나님이시라면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우며 구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로 남는다. 신비적 합일 모델은 고난 속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내재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초월성을 배제해버린 약점이 있다.

6) 지금까지 시도한 고난에 대한 신학적인 해명들은 고난의 원인과 의미를 다 설명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신자의 모든 문제와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최후의 날에 일순간에 해결될 것이다. 바로 이런 면에서 독일의 정치 신학자 요한 바티스트 메츠(Johann Baptist Metz)는 종말론적 전망 모델을 주장하였다. 이승진 교수는 메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28) 박영식,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8/1 (2013/07), 93.

29) Ibid., 94.

30) 박영범, “신정론과 하나님의 고난: 신정론 문제의 응답으로써 하나님 고난이 주는 의미.” 『한국조직신학논총』 33 (2012), 262.

31) 팀 켈러, 『팀 켈러, 고통에 답하다』, 196.

32) Ibid., 233, 240.

33) 이승진,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설교,” 274.

메츠에 따르면 구원은 단순히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메츠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로부터 부활절의 아침으로 가볍게 넘어가는 것을 부정한다. 아직 인간의 세계는 십자가의 현실이 끝나지 않았기에 부활로 넘어가는 것을 승리자의 신화에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한다.³⁴⁾

하지만 종말론적 전망 모델로는, 현재의 고난을 통해 미래의 소망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유의미한 설명이지만, 고난 자체의 이유를 설명하거나 고난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3. 고통의 불가피성과 고난의 유익

앞에서는 고난을 설명하는 여섯 가지 모델을 살펴보았는데 각각의 모델들은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같이 한계점이 있는 설명이다. 고통을 당하는 청중은 개인마다 혹은 그들이 경험하는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청중이 당하는 고통의 정황을 살펴서 각각의 경우에 적절한 모델로 고통의 의미를 적용함으로써 청중이 지불한 고통이라는 대가보다 더 큰 유익을 누리도록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교육적인 고난의 모델’을 중심으로 고난의 유익을 좀 더 자세히 살피고자 한다. 이런 관점은 우선 신약 저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탁월한 설교자 중 한 사람인 팀 켈러로부터도 동의를 받을 수 있다.

환난과 고통의 의미를 설명하는 신약 저자 가운데 우선 야고보를 생각해보자.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는 언제나(ὅταν, whenever)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격려한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은 신자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약 1:2-3). 이와 같은 야고보의 설명에 따르면 신자가 온전하게 되는 데 있어 시련은 불가피한 것이 된다.

베드로 역시 신자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한다. 즉 고난은 신자에게 없어야 하는 것인데 온 나쁘게 고난을 당한 일처럼 여기지 말라는 뜻이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고 즐거워하라고 한다(벧전 4:12-13).

한편, 사도 바울은 고난이 신자를 연단하여 온전하게 만들어 주는 유익 만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해 준다고 설명한다. 그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은 가벼운(혹은 견디기 쉬운 ἐλαφρός) 것이라고 표현했다(고후 4:17). 고난이 천국의 영광을 이룬다면 신자에게 있어 고난은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에 종교 개혁자와 설교자들 역시 고난의 유익에 대하여 역설(力說)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팀 켈러는, 고난이 이중적인 역할을 한다는 루터의 관점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고난에 맞서 이겨 내도록 도와줄 기쁨과 사랑을 얻기에 앞서, 고난은 우선 우리의 교만을 비워내게 해 준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러므로 아직 완전히 비어 있지 않다면 주님은 거기서 아무것도 빚어내실 수 없다.”³⁵⁾

그러므로 악과 고통이 존재함을 근거로 하나님의 존재와 선하심을 부정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고난의 유익을 바라보아야 한다.³⁶⁾ 고난의 유익은 매우 다양하겠지만 팀 켈러가 소개하는 고난의 유익은 다음의 다섯 가지이다.³⁷⁾

34) 이승진, “대재앙에 대한 신정론 관점의 설교,” 53-54.

35) 팀 켈러, 『팀 켈러, 고통에 답하다』, 82-83.

36) Ibid., 142.

37) Ibid., 300-303.

- 1) 고난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놓는다. 고난을 겪으면서 인간은 겸손하게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그 결과 자신의 흠을 적극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 2) 고난은 우리 삶의 여러 좋은 것들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꾼다. 그 결과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게 해 준다.
- 3) 고난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탄탄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C. S. 루이스도 말했듯이 형통할 때 하나님은 속삭이시지만, 고난 속에 있을 때는 확성기로 소리치시기 때문이다.
- 4) 고난은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것 막다른 길로 우리를 몰아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단단히 붙는 경험을 통하여 상상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맛보게 된다.
- 5)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고통스러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없다.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으면 고난을 당하는 자의 슬픔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몸소 고난을 경험하면서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에게 깊은 연민을 품게 된다.

이상으로 청중에게 설명할 고난의 의미와 유익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설교자에게는 고통당하는 청중에게 고통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것뿐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청중(신자)에게 접근하는 태도와 방식 또한 매우 중요하다. 청중이 고통당하는 때에 설교자가 어떻게 다가가느냐 하는 것은 결국 그 청중이 그 설교자를 신뢰하고 그의 설교에 경청(傾聽)할 여부(與否)를 결정하게 한다.

그렇다면 설교자는 고통당하는 청중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우선 신정론의 설명의 한계점을 확인한 후에 그 대안을 마련해보기로 하겠다.

IV. 신정론의 한계점과 타인의 얼굴

1. 신정론의 의의(意義)와 평가

앞에서 살펴본 고난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여섯 가지 모델의 공통점은 고난에 대해 신정론(神正論) 혹은 변신론(辯神論)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사실이다. 신정론으로 번역되는 theodicy는 헬라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θεός와 의로움을 뜻하는 δίκη의 합성어로서 하나님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이론이다. 다시 말하면 신정론은 때로 무고한 자의 까닭 모를 고통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고 설명하려는 논리이다. 신정론의 관점으로 볼 때 고통은 선을 더 두드러지게 하고 더 큰 선에 이바지하므로, 부분으로서의 고통은 전체로서는 선이 된다.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니츠(G. W. Leibniz, 1646~1716)은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 혹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입장에서 신정론을 주장하였다. 라이프니츠는 어거스틴의 전통적인 입장에 서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세계를 “모든 가능한 세계 가운데 최상의 세계”로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비록 세상에 고통과 불합리한 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신정론을 피력하려고 노력하였다.³⁸⁾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음에도 이 세상에는 왜 악이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라이프니츠는 『변신론』에서 “악은 선의 허용된 결핍”이라는 해결책을 내놓았다.³⁹⁾ 라이프니츠가 변신론에서 표방하는 것은 “고통과 죄악이 존재하는 세계와 최선의 조화와 행복으로 구성된 세계는 양립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의 계산에 따르면 현존하는 악은 최선에 이르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⁴⁰⁾

38) Gottfried Wilhelm Leibniz/ 이근세 옮김, 『변신론: 신의 선, 인간의 자유, 악의 기원에 관하여』 (서울: 아카넷, 2014), 28-31, 441-50.

39) 이상명, “라이프니츠: 변신론과 인간의 자유,” 『철학』 106 (2011/02), 55-56.

40) Ibid., 62-63.

그러나 이런 변신론의 설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강영안은 “변신론의 맥락에서는 인간의 고통이 실제로 절실한 현실적 문제로 취급되기보다는 신적 섭리와 계획의 한 부분으로 설명되어 버렸다.”라고 지적하고 있다.⁴¹⁾

프랑스의 한 비평가인 라이프니츠의 신정론에 대해 ‘낙관주의’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평가했다. 그런데 막상 그 ‘낙관주의’에 대해 의심하게 된 계기는 학술적인 토론보다는 오히려 앞에서 언급한 리스본 대지진 때문에 왔다.⁴²⁾

2. 리스본 대지진과 신정론의 한계

리스본은 대서양에 면한 항구 도시로 포르투갈의 최대 도시이며 수도(首都)이다. 15세기 리스본은 해외 식민지에서 흘러들어오는 재화로 인해 대도시로 급성장하여 서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불렸으며 16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리스본의 시가지와 건축물은 1755년 11월 1일 ‘리스본 대지진’으로 6일간 도시 전체가 불바다로 변하면서 도시의 2/3가 파괴되어 사라지게 되었다.⁴³⁾

리스본 대지진 사건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좋은 신자에게 왜 다른 사람보다 더한 불행이 찾아오느냐 하는 의문과 함께 신정론이 비판에 직면하였다. 그 이유는 리스본이 여타의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건한 도시였기 때문이다. 니콜라스 시라디(Nicholas Shradly)는 당시 리스본의 경건함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12세기에 지어진 주교좌성당 외에도 교구 성당이 40군데가 넘었고, 공소가 121곳, 수도원이 90곳, 다양한 수도회들이 150곳이나 있었다.... 리스본에서는 한 걸음 땀 때마다 성당이나 노변의 십자가, 성모마리아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당시 리스본 인구 25만 명 중 10퍼센트가 수도사였다.⁴⁴⁾

특히나 대지진이 발생한 1755년 11월 1일은 만성절(All Saints' Day)로서 교회력에서 엄격하게 지키는 축일로 이날 하루 모든 경제활동은 중단되었다. 이날 아침 종소리가 울리자 미사를 위해 길을 나선 인파로 리스본 거리가 북적이고 있었다.⁴⁵⁾

이처럼 경건했던 도시가 오전 9시 30분경에 시작된 첫 지진에 이어 몇 차례의 여진이 발생하자 25분이 채 안 되는 사이에 몇 세기에 걸쳐 건립된 리스본이 폐허로 변했다.⁴⁶⁾ 그리고 오전 11시경, 지진이 발생한 지 90분 뒤에 발생한 해일은 채 5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휩쓸어갔다.⁴⁷⁾ 대지진 사건으로 한순간에 사망한 인구는 약 4만 명에서 6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⁴⁸⁾

리스본이 대지진 사건으로 충격적인 재난을 당한 이후 라이프니츠의 신정론에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던 볼테르까지도 생각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⁴⁹⁾ 이처럼 고난의 문제를 신정론만으로 설명하기 곤란하다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며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3. 타인의 얼굴과 대속의 고통

41) 강영안, 『타인의 얼굴-레비나스의 철학』 (서울: 문화과지성사, 2005), 210.

42) Nicholas Shradly/ 강경이 옮김, 『운명의 날-유럽의 근대화를 꽃피운 1755년 리스본 대지진』 (서울: 에코의서재, 2009), 142.

43) 이문원, “옛 해양대국의 자취가 남아 있는 리스본,” 『국토』 340 (2010/02), 71.

44) Shradly, 『운명의 날』, 18-19.

45) Ibid., 21.

46) 허호익, “리스본 대지진과 자연재해에 대한 신학적 쟁점,” 122.

47) Shradly, 『운명의 날』, 30.

48) 민병원, “재난의 정치학: 리스본 대지진과 근대국가에 대한 21세기적 성찰,” 『평화연구』 28/2 (2020.10), 8.

49) Ibid., 11-12.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설교자는 어떤 태도로 접근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레비나스의 철학 “타인의 얼굴”과 “대속의 고통” 개념은 고통당하는 자에게 다가갈 한 돌파구를 열어준다.

우선 한 개인의 경험을 통해 고통당하는 청중에 접근하는 태도에 대해 생각해보자. 강정훈 목사는 사랑하는 아내가 골수암으로 시작한 병이 난소암이 악화되어 5년간 투병하다가 ‘죽기에는 많이 아까운’ 41세에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경험하였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마음을 정리해서 입을 연 강정훈은 ‘아직도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당시 심정을 이렇게 전한다.

그가 슬픔에 빠졌을 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와서 사모님이 좋은 데 갔으니 슬퍼하지 말라고 말해 준 것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너무나 비인간적인 태도였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울고 있는 미망인들에게 울지 말라고 비정하게 요구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강정훈은 단호하게 말한다.⁵⁰⁾

그러면 고통당하는 청중에게 접근하는 바람직하고 성경적인 태도는 무엇인가? 프랑스의 유대교 철학자 에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1906년~1995년)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아우슈비츠 대학살 등 비극적인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설명하려는 변신론은 그 설득력을 잃었다고 본다.

레비나스가 보기에 고통은 고통 그 자체로는 어떠한 쓸모도 없는 부정적인 경험에 불과하다. 레비나스는 나의 고통이나 타자의 고통 자체는 쓸모없고 의미 없으며 타자의 고통을 위한 나의 고통만이 의미 있다고 주장한다.⁵¹⁾

물론 고통은 아무 쓸모가 없으며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을 수 없다는 레비나스의 주장은 다소 과격한 면이 있다. 하지만 레비나스의 주장은 고통을 당하는 청중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해 설교자에게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고통받는 자가 ‘외부의 폭력’에 무력하게 노출된 채 나에게 도덕적 호소력으로 다가오는 윤리적 사건을 레비나스는 ‘타인의 얼굴’이라고 부른다. ‘타인의 얼굴’은 존재 자체를 통해 나에게 호소하고 윤리적 의무를 일깨운다.

이처럼 타인의 얼굴이 자기 스스로 내보이는 방식을 레비나스는 ‘계시’라고 부른다.⁵²⁾ 레비나스가 여기서 ‘계시’라는 종교적 언어를 사용한 까닭은, 얼굴의 현현은 나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타나는 절대적 경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얼굴은 나의 입장과 위치와 상관없이 스스로 자기를 표현하는 가능성이다. 이처럼 타인의 얼굴이 계시로 다가올 때 필요한 것은 대속의 고통을 나눌 의무가 있다는 것이 레비나스의 주장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타인에 대한 나의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감성이라는 사실을 레비나스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나에게 질책하고 호소하는 타자의 저항을 대할 때, 나는 누구로부터도 침해받을 수 없는 나의 행복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타자에 대한 나의 책임이며 나의 의무이기 때문이다.”⁵³⁾

고통받는 자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신음하고 울부짖게 되는데, 여기서 타인의 도움에 대한 근원적 요청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청에 응답하여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의 향유를 포기할 때, 비로소 타인에 대한 관계, 즉 인간 상호 간의 윤리적 전망이 열리게 된다. ‘나’는 이러한 의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를 환대해야 한다. 심지어 레비나스는 ‘나’는 내가 기억할 수도 없는 먼 과거에 벌써 타자를 위한 책임적 존재로 세워졌다고 한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타인을 대신해서 타인의 자리에 세워지는 일을 레비나스는 대속이라고 한다. 대속은 문자 그대로 ‘자리 바꿔 세움 받음’이다. 여기서 나의 위치가 수동적이라는 것이 중요하다.⁵⁴⁾

50) 강정훈, 『내게 왜 이러세요?』, 78-80.

51) 강영안, 『타인의 얼굴-레비나스의 철학』, 227.

52) Ibid., 148.

53) Ibid., 152.

이처럼 레비나스는 고통이 담긴 타인의 얼굴의 현현 앞에서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수용함으로써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추론에서 벗어나 인간 상호 간의 책임의 윤리적인 접근을 강조한다. 이런 면에서 레비나스는 고통당하는 청중에게 다가가는 중요한 접근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상으로 고통당하는 청중을 위한 설교자의 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설교자는 고통당하는 청중에게 어떻게 설교해야 하는가? 설교자는 먼저 청중이 당하는 고통이 어떤 모델에 해당하는지 세심하게 분석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통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고통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유익을 청중이 놓치지 않도록 고통의 의미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때 설교자는 옴의 친구들과 같이 훈계하는 자의 자리에 아닌 고통당하는 청중과 '자리바꿈'의 과정을 통해 고통 중에 있는 청중을 체휼(體恤)하고 위로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청중이 고통을 통해 신앙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스도 재림으로 완성될 고통 없는 나라에 대한 소망을 든든히 세우는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V. 나가는 말

이상으로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또 고난을 겪고 있는 청중에게 설교자가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청중이 고난을 겪을 때, 그리고 그 고난이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거나 장기화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궁금해하거나 모세처럼 소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럴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라고 설교자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다. 예컨대 아스머 교수가 경험했듯이 설교자가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일깨워주면 신자는 잠시 방황하던 자리에서 돌아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

설교자가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해석하는 여러 모델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신자가 겪고 있는 개별적인 고난 사건을 설명하는데 어느 유형이 적절할지 잘 분별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당장은 고난이 아프고 힘들지만, 신자의 성숙에 고난이 불가피함과 결국에는 고난이 유익임을 받아들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설교자에게 고난을 설명하는 모델들을 잘 이해하는 지식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은 고난을 겪고 있는 청중에게 다가가는 태도이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는 신정론의 주장을 강조하느라 자칫 고난을 겪는 신자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체휼(體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타인의 얼굴'이 '계시'라고 하는 레비나스의 설명은 설교자가 청중을 향해 체휼하는 마음을 가지는 데 요긴한 조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C.S. / 김남식 옮김. 『고통의 문제』. 서울: 크리스천서적, 2001.

강영안. 『타인의 얼굴-레비나스의 철학』. 서울: 문화과지성사, 2005.

강정훈. 『내게 왜 이러세요?』. 서울: 두란노, 2021.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 이근세 옮김. 『변신론: 신의 선, 인간의 자유, 악의 기원에 관하여』. 서울:

54) Ibid., 186.

- , 2014.
- 곽성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1건’ 추가.” 『청년의사』 인터넷신문(2021.07.26.) 접속 2021.08.05.
- 니콜라스 시라디/ 강경이 옮김. 『운명의 날-유럽의 근대화를 꽃피운 1755년 리스본 대지진』. 서울: 에코의 서재, 2009.
- 리처드 아스머/ 김현애 옮김. 『실천신학의 네 가지 중심 과제』.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12.
- 민병원. “재난의 정치학: 리스본 대지진과 근대국가에 대한 21세기적 성찰.” 『평화연구』 28/2 (2020.10), 5-38.
- 박영범. “신정론과 하나님의 고난: 신정론 문제의 응답으로써 하나님 고난이 주는 의미.” 『한국조직신학논총』 33 (2012), 243-279.
- 박영식.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8/1 (2013/07), 85-112.
- 발터 벤야민/ 최성만 옮김.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번역자의 과제』. 서울: 길, 2008.
- 빅터 E. 프랭클/ 정순희 옮김. 『죽음의 수용소에서』. 서울: 제일출판사, 2000.
- 옥한흠. 『고통에는 뜻이 있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0.
- 이문원. “옛 해양대국의 자취가 남아 있는 리스본.” 『국토』 340 (2010/02), 70-75.
- 이상명. “라이프니츠: 변신론과 인간의 자유.” 『철학』 106 (2011/02),
- 이승진.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설교.” 『복음과실천신학』 35 (2015), 70-75.
- “대재앙에 대한 신정론 관점의 설교.” 『복음과실천신학』 29 (2013), 70-75.
- “청중에 대한 설교학적 이해.” 『복음과 실천신학』 6 (2003), 60-86.
- “해석학적 실재론에 근거한 성경 해석과 설교 메시지의 전달 과정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54권 (2020), 198-231.
- 캔 가이어/ 마영례 옮김. 『하나님의 침묵』. 서울: 디모데, 2006.
- 팀 켈러/ 최종훈 옮김. 『팀 켈러, 고통에 답하다』. 서울: 두란노서원, 2018.
- 허호익. “리스본 대지진과 자연재해에 대한 신학적 쟁점.” 『신학과문화』 21 (2012), 119-144.
- 홍치모. “C.S. 루이스의 생애와 사상 - 루이스의 작품과 신념 세계.” 『신학지남』 65/3 (1998/09), 203-216.

[Abstract]

Preacher's Understanding of Congregation in Suffering

Choi, Kwang Hee

Audiences who are suffering are curious about the reason for their suffering and want to know how to get out of that suffering. On the other hand, believers want to know why God gave them suffering and the meaning of suffering.

In order for a preacher to reach an audience who is suffering, he must first understand the various models of interpreting suffering, so that he can explain what type of suffering a

believer is experiencing. When the preacher carries out this ministry well, the believer will be able to accept the benefits of suffering and come one step closer to God.

Another important thing for a preacher is his attitude toward his suffering audience. It is more important for a preacher to empathize with their suffering than to judge or teach the suffering audience. Levinas' concept of 'the face of others' can be a useful guide for preachers to develop empathy.

Key Words: Audience Understanding, Suffering, Logotherapy, Function of Language, Theodicy, the Face of Others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 이해와 진정한 설교(True Preaching)에 관한 연구

박동진 박사(McMaster Divinity College/ 실천신학/ 설교학)

■ 초록 ■

본 논문의 목적은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 교리와 그의 참된 설교에 대한 이해와의 깊은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함이다. 그의 성령 세례에 대한 입장은 오순절주의나 은사주의와 동일하다거나, 이들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보다는, 16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설교되었던 “구원의 확신”과 “부흥”이라고 하는 개혁주의 전통의 두 교리에서 파생되었다. 동시에 그의 성령 세례 교리는 이 두 교리들을 원래의 내용 그대로 다시 소개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가 살았던 시대의 콘텍스트 안에서 이 교리들을 발전시키고, 재전유화(re-appropriation)한 것이다. 그의 성령 세례 교리는 한편으로는 청교도 영성과 웨일즈 부흥주의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개인적인 성령 체험에 의해 형성되었다. 무엇보다도 부흥을 향한 로이드 존스의 평생의 갈망과 이로 인한 부흥의 역사에 관한 그의 열정적인 독서와 연구야말로 그의 성령 세례 교리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매트릭스였다. 이 매트릭스는 결과적으로 그의 성령 세례 교리 뿐 아니라 진정한 설교에 대한 이해를 개혁주의 전통과는 구별되게 하였다. 참된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의 세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로이드 존스의 확신은 오늘날에도 설교 사역에 있어서 영적인 “불”의 원천으로서와 새 언약적 능력으로서의 성령의 부으심의 긴급한 필요를 일깨워주고 있다.

주제어: 마틴 로이드 존스, 성령 세례, 진정한 설교, 칼빈주의 감리교, 부흥.

I. 들어가는 말

20세기의 가장 영향력있는 개혁주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D. Martyn Lloyd-Jones)는 진정한 설교(true preaching)야말로 오늘날 교회와 세상을 위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⁵⁵⁾ 로이드 존스에게 있어서 설교란 교회의 주요하고 특별한 임무일 뿐 아니라 사람들을 참된 진리의 지식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런데 그의 설교학의 뿌리는 그의 성령론에 있으며,⁵⁶⁾ 그의 성령론의 중심에는 그의 성령 세례(the baptism with the Spirit)에 대한 이해가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설교에 관한 그의 정의는 그의 성령 세례 교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로이드 존스에 따르면, 설교는 설교문(the sermon)과 설교 행위(the act of preaching)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와 관련하여, 진정한 설교는 강해적이며 교리적인 설교이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설교자들은 진정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로이드 존스는 참된 기독교 설교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동반해야 한다고 확신하는데, 그 이유는 능력의 세례 없이는 성경의 온전한 교리를 설교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 교리는 설교의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의 성령 세례 교리는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봉사에 있어서 능력의 부여(empowerment for service)를 포함한 신자

55) D. Martyn Lloyd-Jones, *Preaching and Preachers*, Ministry Resources Library Series, (Grand Rapids: Zondervan, 1972), 9.

56) Tony Sargent, *The Sacred Anointing: The Preaching of Dr. Martyn Lloyd-Jones*, (Wheaton, IL: Crossway, 1994), xii.

의 다양하고도 넓은 영적 경험들을 다루고 있다. 사실 그의 성령 세례 교리가 주로 논쟁을 일으킨 부분은 중생과 성령 세례의 관계에 관한 것이지, 그의 설교학에 관한 것이 아니다. 로이드 존스는 성령 세례란 중생의 사건과는 다른, 회심 이후의 성령의 특별한(exceptional) 역사의 체험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중생과 성령 세례를 분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그는 참된 신자로 할지라도 성령으로의 세례를 아직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로이드 존스의 사후에 성령 세례 교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의 설교집 *Joy Unspeakable: Power and Renewal in the Holy Spirit* (1984)과 *Prove All Things: The Sovereign Work of the Holy Spirit* (1985)이 출판되었을 때, 그는 죽었어도 자신이 속해 있던 개혁주의 진영으로부터 거친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들이 보기에 이 설교들은 이전의 로이드 존스가 견지했던 참된 개혁주의 신학으로부터 이탈한 것이었으며, 로이드 존스가 “일종의 신학적 알츠하이머에 걸렸을 수도 있다”⁵⁷⁾는 증거들이었다. 개혁주의 진영으로부터의 이와 같은 신랄한 비판은 놀라운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개혁주의 입장은 성령 세례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중생의 순간에 누리는 최초의(initial) 경험으로 보기 때문이다.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기에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 교리는 오순절주의가 주장하는 이중 패러다임(중생-성령 세례)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 교리는 오순절주의와 동일하다거나, 그에 영향을 받았다기 보다는, 16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설교되었던 “구원의 확신”(assurance of salvation)과 “부흥”(revival)이라고 하는 개혁주의 전통의 두 교리에서 파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동시에 그의 성령 세례 교리는 이 두 교리들을 원래의 내용 그대로 다시 소개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가 살았던 시대의 콘텍스트 안에서 이 교리들을 발전시키고, 재전유화(re-appropriation)한 것이다. 그의 성령 세례 교리는 한편으로는 청교도 영성과 웨일즈 부흥주의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개인적인 성령 체험에 의해 형성되었다. 무엇보다도 부흥을 향한 로이드 존스의 평생의 갈망과 이로 인한 부흥의 역사에 관한 그의 열정적인 독서와 연구야말로 그의 성령 세례 교리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매트릭스(모판)이었다. 로이드 존스 안의 부흥의 열망이라고 하는 이 매트릭스가 결과적으로 그로 하여금 개혁주의 전통과는 다른 성령 세례 교리 입장을 견지하도록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매트릭스는 그의 진정한 설교에 대한 이해 역시 개혁주의 전통과는 구별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는 설교의 우위성을 확신하였을 뿐 아니라, 참된 기독교 설교는 설교 방식에 있어서 강해적이고, 내용에 있어서 교리적이며, 목표에 있어서 경험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의 설교학은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설교란 반드시 성령으로의 세례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그의 입장은 그의 설교학을 개혁주의 전통과는 구별되게 하는데, 이것 역시 그의 부흥의 열망이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낳은 결과인 것이다. 결국, 로이드 존스 안의 부흥의 열망이라고 하는 이 근거의 매트릭스를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의 성령 세례 교리와 진정한 설교에 관한 그의 신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우선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 교리의 주요한 내용들을 살펴본 다음, 이와 같은 성령 세례에 대한 입장이 그의 진정한 설교에 대한 이해와 어떠한 긴밀한 관계가 있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그의 설교학이 어떠한 지점에서 개혁주의 전통의 설교학과 구별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설교를 위해서는 성령으로의 세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로이드 존스의 신념이 오늘날 설교학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본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II. 펴는 글

57) Andrew Atherstone, “Lloyd-Jones and the Charismatic Controversy,” in *Engaging with Martyn Lloyd-Jones: The Life and Legacy of “the Doctor,”* edited by Andrew Atherstone and David Ceri Jones, (Nottingham, England: InterVarsity, 2011), 114.

1.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에 대한 이해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에 관한 설교와 강연들을 종합해 볼 때, 그의 성령 세례에 대한 이해는 일반적으로 여섯 개의 특징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성령 세례는 중생과는 구별되는 사건이며, 중생 이후에 일어나는 성령의 예외적인(exceptional) 역사의 체험이다. 로이드 존스는 성령의 사역을 일반적인(간접적인) 사역과 예외적인(직접적인) 사역으로 구분한다.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으로는 죄의 깨달음(conviction), 중생, 성화 등을 들 수 있다.⁵⁸⁾ 성령의 예외적인 사역으로는 구원의 확신(assurance), 증거(witness), 사역(ministry) 등과 관련이 있다.⁵⁹⁾ 전자는 말씀을 매개로 하는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이며, 후자는 말씀을 매개로 하지 않는 직접적이고(immediate) 압도적인(overwhelming) 성령의 사역이다. 로이드 존스는 성령 세례의 경우는, 후자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주장한다.⁶⁰⁾

둘째, 성령 세례의 중요한 결과 중의 하나는 신자에게 온전한 구원의 확신(혹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⁶¹⁾ 로이드 존스는 이 온전한 확신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성령 세례의 특징”이라고 말한다.⁶²⁾ 그에 따르면, 신자에게는 세 종류의 확신이 있다. 첫번째 유형의 구원의 확신은 신자가 성경의 내용을 추론하여 얻게 되는 확신으로서 가장 낮은 단계의 확신이다.⁶³⁾ 두번째 유형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표지들이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얻게 되는 확신이다.⁶⁴⁾ 세번째 유형의 확신은 성령님께서 친히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신자에게 주어지는 확신으로서, 가장 높은 단계의 확신이다.⁶⁵⁾ 로이드 존스는 이처럼 성령 세례의 결과로 주어지는 가장 높은 형태의 확신에 대한 성경적 근거로서 롬 8:16(“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을 든다.

셋째, 성령 세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로이드 존스는 성령 세례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지, 우리 자신의 행동이나 노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로이드 존스에게 성령 세례와 부흥의 개념은 별반 차이가 없다. 그는 부흥이란 많은 수의 사람들이 동시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한다.⁶⁶⁾ 또한 그는 어떤 외부적인 요건들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 그에게 있어서 성령 세례 혹은 부흥이란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여 그 결과로 받는 것이 아니다.

넷째,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며,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다. 로이드 존스는 사도 베드로의 경험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은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았고,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위로부터 임한 능력으로 설교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가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 섰을 때, 그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여”(행 4:8)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로이드 존스는 이것을 베드로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여한 또 다

58) D. Martyn Lloyd-Jones, *Joy Unspeakable: Power and Renewal in the Holy Spirit*, (Wheaton, IL: Harold Shaw, 2000), 66.

59) *Ibid.*, 66.

60) 이안 머리(Iain Murray)는 성령의 간접적인 사역을 일반적인 사역으로, 그리고 성령의 직접적인 사역을 예외적인 사역으로 이해하는 로이드 존스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안 머리는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과 예외적인 사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것의 비매개성(immediacy)이라기보다는 그것의 강도(intensity)라고 주장한다. 이안 머리의 *Lloyd-Jones: Messenger of Grace*, 162 쪽과 *Pentecost Today?*, 31 쪽을 참조하라.

61) Lloyd-Jones, *Joy Unspeakable*, 38.

62) *Ibid.*, 90.

63) *Ibid.*, 91-92.

64) Iain H. Murray, *Lloyd-Jones: Messenger of Grace*, (Edinburgh: Banner of Truth, 2008), 128.

65) Lloyd-Jones, *Joy Unspeakable*, 93.

66) *Ibid.*, 51.

른 성령 세례라고 말하면서, 성령 세례란 이처럼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⁶⁷⁾ 그는 사도행전 2장이 묘사하고 있는 오순절날에 일어난 일들은 반복될 수 없는 단회적인 사건이 결코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부흥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사도행전 2장이 묘사하고 있는 그 원래의 상태로 다시 돌아 갔었다고 주장한다.⁶⁸⁾ 더 나아가, 로이드 존스는 복음 설교를 위한 사도적 능력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확신한다.⁶⁹⁾

다섯째, 성령 세례는 설교 행위에 있어서 설교자와 청중에게 동시에 신적 권위(혹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을 불러 일으킨다. 로이드 존스는 18세기 부흥의 주역들인 조지 윗필드(George Whitefield)와 하웰 해리스(Howell Harris)의 저널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The Lord came down among us)”는 비슷한 표현이 발견되는 것에 주목한다.⁷⁰⁾ 로이드 존스가 보기에 이와 같은 표현은 성령 세례가 설교자와 그의 설교 행위에 있어서 신적 권위를 동반하게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표현은 설교자가 설교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임재의 체험은 설교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신(messenger)으로서의 큰 담대함을 얻게 해준다. 한편, 청중들 역시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게 되고, 사람의 메신저가 아닌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권위 아래에서 자신들이 개별적으로 다뤄지고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⁷¹⁾

마지막으로, 성령 세례의 주된 목적은 설교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로이드 존스는 성령 세례는 성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설교와 같은 증언(witness)에 능력을 부여하는 것과 주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설교 행위 가운데 설교자에게 임하는 성령의 능력부여를 종종 “성령의 기름부으심(unction)”이라고 표현한다. 이 “기름부으심”이라는 표현은 성령 세례의 역사가 설교와 관련되어 나타날 때 쓰는 기술적 용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설교 사역에 나타나는 이 기름부으심을 성령이 특별한 방식으로 설교자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며, 설교자로 하여금 성령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게 해줌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설교자의 노력과 수고를 초월하여 능력있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고양시켜주는 것이라고 정의한다.⁷²⁾

지금까지 우리는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에 대한 강의와 설교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가 주장했던 성령 세례의 중요한 여섯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로이드 존스의 진정한 설교에 대한 이해는 그의 성령 세례 교리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더 나아가, 이 둘의 관련성이야말로 그가 한편으로는 개혁주의 전통의 설교학을 견지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설교학을 펼쳐나가게 된 근본적인 동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로이드 존스의 진정한 설교에 대한 개혁주의 전통적 이해에 대해 살펴본 다음, 그가 성령 세례 교리를 중심으로 어떻게 구별된 설교학을 펼쳐 나가고 있는지를 논의하려고 한다.

2. 로이드 존스의 진정한 설교에 대한 개혁주의 전통적 이해

로이드 존스는 교회 사역에 있어서 설교의 우위성을 확신하였을 뿐 아니라, 참된 설교란 방식에 있어서 강해적이며, 내용은 교리적이며, 목표는 경험적이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는 점에서 개혁주의 설교학 전통, 특히 영국 청교도들과 이들의 계승자인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의 설교학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로이드 존스는 존 칼빈(John Calvin)과 청교도들처럼 교회와 사역자의 주된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라고 보았다.⁷³⁾ 설교의 우위성에 대한

67) Lloyd-Jones, *Preaching and Preachers*, 325.

68) D. Martyn Lloyd-Jones, *Revival*, (Wheaton, IL: Crossway, 1987), 199.

69) Sargent, *The Sacred Anointing*, 51.

70) *Ibid.*, 16.

71) Murray, *Messenger of Grace*, 32.

72) Lloyd-Jones, *Preaching and Preachers*, 322.

73) *Ibid.*, 68.

그의 신념은 신약 성경을 볼 때, 예수님, 세례 요한, 그리고 사도들 모두 궁극적으로 설교자였다는 사실에 근거한다.⁷⁴⁾ 또한 교회의 역사, 특히 개신교의 역사를 보면, 설교는 항상 중심적이며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다고 그는 말한다.⁷⁵⁾ 무엇보다 설교가 왜 우위를 차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로 로이드 존스는 신학적 근거를 들고 있다. 사람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에게 반역한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교회와 설교자의 긴급한 임무는 설교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구원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깨닫게 할 뿐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이다.⁷⁶⁾ 따라서 로이드 존스는 개인 상담과 심리 치료와 같은 설교 이외의 사역들은 설교를 보완해야 하는 것이지, 결코 설교를 대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⁷⁷⁾

로이드 존스는 설교의 내용이 참된 설교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16, 17세기의 청교도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설교가 강해적이며 교리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⁷⁸⁾ 설교가 항상 강해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설교의 메시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⁷⁹⁾ 그런데 참된 강해 설교는 또한 교리적인 설교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이 전달하고자 의도하고 있는 원리들과 교리들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⁸⁰⁾ 로이드 존스는 만약 설교자가 성경 텍스트의 한 구절이나 한 섹션을 이해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텍스트 안에 넣어 두신 구체적인 명제나 중요한 교리들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⁸¹⁾ 로이드 존스는 성경 텍스트 안에 있는 교리를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설교가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았다.⁸²⁾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로이드 존스 역시 청중들의 지성(mind)에 교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다면, 그들의 마음(heart)에 어떠한 변화도 일으킬 수 없으며, 그들의 삶 속에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로이드 존스에게 교리를 설교한다는 것은 청중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결국 교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자신의 죄를 주목하게 하며, 설교자의 결단의 요청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보았다. 청교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로이드 존스 역시 설교문 안의 교리적 내용들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로서 끝나서는 안되며, 반드시 청중의 삶 속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로이드 존스의 설교 구조는 “주해-교리-적용”이라고 하는 청교도들의 3단계 설교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⁸³⁾

74) D. Martyn Lloyd-Jones, *The Puritans: Their Origins and Successors*, (Edinburgh: Banner of Truth, 2014), 375

75) Lloyd-Jones, *Preaching and Preachers*, 11.

76) Ibid., 27-29.

77) Ibid., 40.

78) 제임스 팩커(James Packer)는 청교도 설교의 특징을 설교 방식에 있어서 강해적이며, 설교 내용에 있어서 교리적이라고 보았다. James I. Packer, *A Quest for Godliness: The Puritan Vision of the Christian Life*. (Wheaton, IL: Crossway, 2010), 284.

79) Lloyd-Jones, *Preaching and Preachers*, 71.

80) Iain H. Murray, *The Life of Martyn Lloyd-Jones 1899-1981*, (Edinburgh: Banner of Truth, 2013), 307.

81) Park Wan-Chul, “The Integration of the Word and Experience in the Preaching of David Martyn Lloyd-Jones,” *Journal of Reformed Theology* 24 (2006), 530.

82) Steven J. Lawson, *The Passionate Preaching of Martyn Lloyd-Jones*, (Sanford, FL: Reformation Trust, 2016), 128.

83) 청교도 설교의 3 단계 설교 구조(주해-교리-적용)는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의 *The Art of Prophesying* 에 잘 요약되어 있다. 퍼킨스는 설교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1. 정경에 있는 본문을 분명하게 읽기, 2. 읽은 본문의 뜻과 이해를 성경을 통해 제공하기(주해), 3. 본래의 의미에서 몇가지 유익한 교리 내용들을 모으기(교리), 4. 올바르게 수집한 교리적 내용들을 단순하고 명확한 언어로 사람들의 삶과 삶의 방식들에 적용하기(적용). William Perkins, *The Art of Preaching*. 1592.

로이드 존스에게 있어서 성경으로부터 교리를 설교한다는 것은 단지 청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들의 지식을 쌓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청중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는 설교를 “불붙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신학”이라고 정의한다.⁸⁴⁾ 왜냐하면 설교자가 성경의 위대한 교리들을 깨닫고, 이 교리들을 설교하면서 깊이 감동을 받게 될 때, 설교자는 불이 붙을 수 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로이드 존스에게 진정한 설교란 성경 텍스트 속의 교리들을 경험적으로 설교하는 것이다. 설교가 해야 할 일은 교리를 생동감 있고, 생생하며, 열렬하게 다가오도록 하는 일이다.⁸⁵⁾ 궁극적으로, 참된 설교란 청중에게 “하나님과 그의 임재를 감각”하도록 해주는 설교이다.⁸⁶⁾ 설교의 주된 목적은 단지 정보(information)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인상(impression)을 새겨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로이드 존스 역시 설교의 최종적인 목표를 단지 청중에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이끄는 것에 두었다.

3. 로이드 존스의 진정한 설교에 대한 독특한 이해

로이드 존스의 진정한 설교에 대한 독특한 이해의 중심에는 설교를 정의할 때, 설교문과 설교 행위를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참된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올바른 비율로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⁸⁷⁾ 설교문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혁주의 전통에 따라 강해적이며, 교리적이어야 한다고 로이드 존스는 주장한다. 그리고 설교 행위의 경우에는 설교자에게 반드시 성령으로의 세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즉, 로이드 존스의 생각에는 성령 세례와 설교의 긴밀한 관계는 설교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는 개혁주의 전통과는 다르게, 설교자에게 임하는 성령 세례가 설교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로서 청중에게 어떠한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로이드 존스의 독특한 설교 이해는 부흥의 역사에 관한 그의 관심과 연구의 결과이다. 로이드 존스는 비상한(extraordinary) 성령의 역사의 기록들, 특히 부흥의 시기에 나타났던 강력한 설교 사역에 대한 그의 연구에 기반하여, 설교자에게 임하는 성령 세례의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된 자신만의 독특한 설교학을 수립했다. 무엇보다도, 로이드 존스는 18세기 칼빈주의 감리교(Calvinistic Methodism)의 역사 속에서 진정한 설교의 비전을 발견하였다. 그는 오늘날 교회와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18세기 칼빈주의 감리교도 설교자들, 예를 들면 조지 헛필드, 하웰 해리스, 다니엘 롤랜드 등이 보여주었던 종류의 설교라고 믿었다.

그의 강연집 *Preaching and Preachers*의 다섯번째 장에서 로이드 존스는 진정한 설교로서 설교 행위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열 가지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 열 가지 요소들은 설교자의 전인격(the whole personality), 권위와 통제 의식, 자유, 진중함, 생동감, 열정과 영혼에 대한 염려, 열렬함(warmth), 긴박감과 설득력, 파토스, 그리고 능력이다. 로이드 존스에게 있어서 이 열 가지 요소 중에서 능력의 요소야말로 그의 성령 세례 교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핵심 요소이다. 그래서 그는 위의 강연집의 맨 마지막 장(“Demonstration of the Spirit and of the Power”)을 할애해서 이 주제를 전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Reprint, ([s. n.]: Pavlik, 2012), 349.

84) Lloyd-Jones, *Preaching and Preachers*, 97.

85) Lloyd-Jones, *The Puritans*, 360.

86) Lloyd-Jones, *Preaching and Preachers*, 97.

87) *Ibid.*, 96.

1) 사도적 방식의 설교: 메시지와 성령의 능력

이 능력의 요소는 로이드 존스의 사도적 방식의 설교에 대한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로이드 존스에게 사도적 설교(Apostolic preaching)란 진정한 설교를 설명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로이드 존스에게 사도적 설교는 신약 성경, 특히 바울 서신이 묘사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과 방식을 따르는 설교이다. 로이드 존스는 고전 2:4-5(“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과 살전 1:5(“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을 사도적 설교를 보여주는 핵심 구절들로 본다. 로이드 존스가 1967년에 토론토의 나스장로교회에서 살전 1:5을 본문으로 설교한 “Not in Word Only”를 보면, 그가 이해하는 사도적 설교란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그는 사도적 설교란 “메시지”(not in word only)와 그 메시지에 임하는 “성령의 능력”(but also in power)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⁸⁸⁾ 여기서 메시지란 앞에서 살펴본 진정한 설교의 첫 번째 요소인 설교문과 다르지 않다. 사도적 설교의 메시지 역시 강해적이며, 교리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는 살전 1:5에 따르면, 핵심적인 교리들(메시지)을 설교하는 것이 진정한 설교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메시지 위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주장한다.⁸⁹⁾ 이처럼 사도적 설교의 근간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에 있다. 로이드 존스에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은 설교자가 성령의 영향 아래 설교하는 것이며,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channel)가 되어, 성령에 의해 사용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성령으로의 세례는 사도적 방식의 설교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것이다.

왜 로이드 존스는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와 같은 설교의 방식이 진정한 설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보았던 것일까? 로이드 존스는 사도 바울의 고전 2:4-5과 살전 1:5의 진술들은 “설교는 나(설교자)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행위이다”라는 바울의 신학적이자 경험적인 고백이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이드 존스는 설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다면, 즉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인간의 모든 능력과 노력, 지식과 기술, 방식과 조직들은 결국 아무런 효과를 낳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

2) 성령 세례가 설교자와 설교행위, 청중에게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로이드 존스는 성령 세례가 설교자와 그의 설교 행위, 그리고 청중에게 어떠한 영향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로이드 존스는 성령 세례가 설교자에게 온전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줌으로써, 설교자로 하여금 신적 권위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생각한다. 사실 로이드 존스는 구원(혹은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의 확신의 경험과 설교의 능력부여의 경험과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이 거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에 대한 이해 속에는 이 두 경험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서, 그는 성령 세례의 주된 결과가 신자들(설교자들을 포함)에게 온전한 확신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면,⁹⁰⁾ 성령 세례의 주된 목적은 설교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⁹¹⁾ 이처럼 로이드 존스의 사고 속에는 이 두 경험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로이드 존스는 롬 5:5(“...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이 말하는 것처럼, 설교자에게 임하는 성령 세례의 본질은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성령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자의 심령 안에서 깊이 체험하게 될 때, 설교자는 신적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설교하게 된다고 믿었다. 로이드 존스는 이와 같은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서 오순절 날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경

88) Sargent, *The Sacred Anointing*, 263.

89) *Ibid.*, 273.

90) Lloyd-Jones, *Joy Unspeakable*, 38.

91) *Ibid.*, 76.

우 뿐 아니라, 존 웨슬리, 조지 윗필드, 하웰 해리스, 찰스 스필진, 그리고 D. L. 무디와 같이 강력한 설교자들의 사례들을 들고 있다. 로이드 존스가 보기에는 이와 같은 설교자들은 모두 중생 이후에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비슷한 체험들을 경험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과 죄사함의 은혜를 단지 지적이거나 피상적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이를 경험적으로 깊이 깨닫는 체험을 하였다. 이처럼 성령으로의 세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체험은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복음의 헌신으로 불붙게 했다고 로이드 존스는 말한다.

또한 로이드 존스는 설교자가 성령 세례를 체험하게 될 때, 그의 심정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공허의 마음으로 가득차게 될 뿐 아니라, 그들을 향한 열심으로 불붙게 된다고 말한다. 그의 강연 “Howell Harris and Revival”에서, 로이드 존스는 하웰 해리스의 성령 세례 체험을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좋은 예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해리스의 성령 세례 체험이 그를 능력있는 복음 전도자로 변화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순간부터 그는 불타는 전도자가 되었다... 이 경험의 결과로서, 그는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슬픔과 영혼들을 향한 공허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 이 (성령 세례) 경험이야말로 그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끌었던 것이다”⁹²⁾라고 말한다. 또 다른 강연에서 조지 윗필드의 강력한 설교 사역을 논하면서 로이드 존스는 “(조지 윗필드가 경험했던 것처럼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영혼들을 향한 슬픔과 염려를 가져다 주며, 우리에게 열심을 품게 하며, 모든 계층과 종류의 사람들에게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도록 해준다”⁹³⁾라고 주장한다.

실질적으로 로이드 존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 세례야말로 진정한 설교가 되기 위해 설교 행위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들—열심, 공허, 능력, 권위, 자유, 생동감, 열렬함, 긴박감, 파토스 등—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로이드 존스의 주장은 설교 행위 가운데 성령 세례가 없다면, 비록 설교문 자체가 강해적 방식과 교리적 내용에 있어서 완벽하다 할지라도, 진정한 설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설교를 “불붙은 논리(logic on fire)”로 정의하고 있는데, “논리(logic)”가 메시지(‘not in word only’)를 의미한다면, “불붙은(on fire)”은 설교자와 그의 설교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성령의 능력(‘but also in power’)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성령의 영향 아래 이루어지는 설교가 청중들에게는 어떠한 결과를 일으킨다고 로이드 존스는 생각했을까? 우선, 로이드 존스는 청중들 역시 성령의 영향 아래 이루어지는 설교를 들으면서 즉각적으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와같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해지는 설교는 청중들로 하여금 죄의 인식과 회심을 가져다 준다. 로이드 존스는 주장하기를, 성령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단지 청중의 생각과 이해를 밝혀줌으로써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줄 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 속에 이와 같은 진리들을 깊이 감각(sense)하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말한다. 1964년에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성령 세례를 주제로 한 시리즈 설교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단지 간접적으로만 확신해 왔던 것들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러한 것들을 비매개적으로(immediately) 실제적인 것이 되게 하신다”⁹⁴⁾라고 설교했다.

같은 맥락에서, 로이드 존스는 주장하기를, 성령께서 사람들 가운데 임하실 때, 사람들은 영적인 일들을 지각하게 되고, 이 신령한 진리들에 대해 이전까지 가져보지 못했던 분명한 감명(view)을 얻게 된다고 말한다.⁹⁵⁾ 로이드 존스가 보기에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지각하게 되는 진리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 죄에 대한 고통스러운 깊은 인식,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 등이다.⁹⁶⁾ 한 마디로,

92) Lloyd-Jones, *The Puritans*, 286-91.

93) *Ibid.*, 127.

94) Lloyd-Jones, *Joy Unspeakable*, 85.

95) Lloyd-Jones, *Revival*, 100.

로이드 존스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메시지 자체로는 청중들로 하여금 그 메시지를 그들의 마음 속에 깊이 경험하게끔 할 수 없다고 믿었다. 결론적으로, 그가 말하는 사도적 설교란 사도 바울이 살전 1:5 과 고전 2:4-5 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메시지와 성령의 능력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설교의 방식인 것이다.

이와 같은 로이드 존스의 주장들을 고려해 볼 때, “존 칼빈에게는 항상 조지 윗필드가 필요하다”⁹⁷⁾라고 제시했던 그의 중요한 명제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명제에서 “존 칼빈”은 메시지(혹은 정통교리)를 의미한다면, “조지 윗필드”는 메시지 위에 임하는 성령의 능력, 즉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 로이드 존스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설교문(혹은 메시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 설교문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성령 세례)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⁹⁸⁾ “정통 교리는 필수적인 것이지만, 정통 교리만으로는 부흥을 가져올 수 없다”⁹⁹⁾고 말한 것처럼, 로이드 존스는 진정한 설교에 대해 말하면서도, 그의 주된 관심은 부흥이라는 주제에 있었다. 그가 이처럼 사도적 방식의 설교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던 이유는 “이것[사도적 방식의 설교]이야말로 모든 부흥과 개혁을 일으켜왔던 하나님의 방식”¹⁰⁰⁾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로이드 존스는 교회사와 성경을 연구하면서 사도행전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¹⁰¹⁾ 성령 세례는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는 사도행전 2 장에 나오는 오순절에 일어난 일들은 결코 반복될 수 없는 단회적(‘once and for all’)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그는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는 사도행전 2 장이 묘사하고 있는 그 기원적 사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한다.¹⁰²⁾ 그는 “교회가 부흥할 때마다...교회는 전에 발생했던 것에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것을 재발견하면서, 그 옛 수원(the ancient supply)을 발견하게 된다”¹⁰³⁾고 말하는데, 여기서 “옛 수원”이란 “우리가 거기에 가서 찾지만 하면”¹⁰⁴⁾ 여전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¹⁰⁵⁾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로이드 존스는 사도들이 행했던 강력한 설교 사역의 가능성이 여전히 오늘날의 모든 설교자들에게 열려 있다고 확고히 믿었는데, 그 이유는 그 옛 수원이 현재에도 여전히 이용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4. 부흥 신학의 영향과 로이드 존스의 진정한 설교의 비전

서두에서 밝혔듯이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 교리의 한 축은 개혁주의 전통의 부흥 신학이다. 로이드 존스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 신학을 따르는 칼빈주의 성령 학파(Calvinistic Pneumatic School)의 20세기의 주요한 인물로 볼 수 있다.¹⁰⁶⁾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진정한 설교(혹은 사

96) Ibid., 101-2.

97) Lloyd-Jones, *The Puritans*, 126.

98) Ibid., 126.

99) Ibid., 126.

100) Sargent, *The Sacred Anointing*, 275.

101) 이것은 로이드 존스 개인의 성경 해석임을 밝힌다.

102) Lloyd-Jones, *Revival*, 199.

103) Ibid., 28.

104) Ibid., 28.

105) Ibid., 32.

106) 칼빈주의 성령 학파는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시기와 장소를 선택하셔서 주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언제나 복음 설교의 콘텍스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는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아치볼드 알렉산더(Archibald Alexander), 사무엘 밀러(Samuel Miller), 찰스 핫지(Charles Hodge), 제임스 뷰캐넌(James Buchanan), 조지 스미턴(George Smeaton), 웨일즈 칼빈주의 감리교도들 등을 들 수 있다. Robert Davis Smart, *Jonathan Edwards's Apologetic for the Great Awakening*, (Grand Rapids: Reformation

도적 설교)에 있어서 성령 세례의 필요성에 관한 그의 신념은 부흥에 대한 전통적인 칼빈주의적 이해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로이드 존스가 갖고 있었던 설교와 부흥과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믿음,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는 설교자 위에 성령의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17, 18세기의 청교도들과 칼빈주의 감리교도들의 설교와 저작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칼빈주의 부흥 신학을 견지했던 청교도들은 부흥의 중요한 전조가 설교자들에게 성령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현상이라고 믿었다. 그 결과, 그들의 설교가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청중들에게 큰 영향을 가져온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설교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들이 거룩한 열심, 공훈, 담대함, 권위와 능력으로 갖추어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청교도들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행동이 없다면 개혁주의 교리를 설교하는 것만으로는 개혁이나 부흥을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기에, 설교자들과 그들의 설교 사역 위에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이 있기를 열렬히 구하였다.¹⁰⁷⁾

예를 들어, 17세기의 영국 청교도 존 호우(John Howe)는 성령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은혜의 기간에는 설교자들은 많은 분량의 성령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사람들은 “요즘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설교들”을 듣게 될 것이며, “영혼들은 확실히 전혀 다른 수준으로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¹⁰⁸⁾ 그는 또한 겔 39:29(“...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이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부으심이 설교자들에게 임한다면, “그들은 우리가 지금 발견하는 것보다 더 큰 공훈과 감정으로, 더욱 더 진지하게, 더 큰 권위와 끌림(allurement)으로”¹⁰⁹⁾ 설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뉴잉글랜드 청교도 솔로몬 스토다드(Solomon Stoddard)는 이와 동일한 신념을 공유했던 청교도였다. 눅 4:18-19을 다루고 있는 그의 설교 “The Benefit of Gospel”에서 그는 이렇게 설교했다.

때때로 종교(기독교)는 퇴색의 길을 걷지만 이를 다시 부흥케 하는데 사용되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이중에 한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설교자들 위에 성령이 임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사람들 위에 부어지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설교자들 위에 임한다면, 이것은 매우 희망에 찬 징조입니다.¹¹⁰⁾

스토다드는 위의 설교에서 “설교자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어떻게 기독교의 부흥을 이끌 수 있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¹¹¹⁾ 첫째, 성령은 설교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을 향한 열심을 부여한다고 말한다.¹¹²⁾ 설교자들 안에 있는 “거룩한 열심”(a holy zeal)은 그들의 마음을 불붙게 하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준다.¹¹³⁾ 또한 이 거룩한 열심은 설교자들이 마땅히 설교해야 할 내용을 간과하거나, 혹은 너무 유약하게 설교하지 않도록 하며, 오히려 하나님

Heritage, 2011), 67.

107) Michael J. Crawford, *Seasons of Grace: Colonial New England's Revival Tradition in Its British Contex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42; Michael A. Haykin, *Jonathan Edwards: The Holy Spirit in Revival*, (Darlington, England: Evangelical, 2006), 52.

108) John Howe,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Or, the Prosperous State of the Christian Interest Before the End of Time, By a Plentiful Effusion of the Holy Spirit*, (London: Religious Tract Society, 1835), 77.

109) *Ibid.*, 77.

110) Solomon Stoddard, *The Efficacy of the Fear of Hell to Restrain Men from Sin*, (Boston: Thomas Fleet, 1713), 34-35.

111) *Ibid.*, 35.

112) *Ibid.*, 35.

113) *Ibid.*, 37.

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로 충만하게 채워준다.¹¹⁴⁾

둘째, 설교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는 그들의 사역에 대한 이해와 지혜를 준다고 스토다드는 주장한다.¹¹⁵⁾ 여기서 “이해와 지혜”란 사람들의 죄(iniquities)에 관한 것이다. 설교자들에게 임한 성령은 그들의 설교가 청중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도와주며, 결국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고 믿었다. 그는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통해 설교자들이 청중들의 마음의 거짓됨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 청중들이 자기 스스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끈다”¹¹⁶⁾고 말한다. 스토다드는 위의 설교를 “만약 성령이 설교자들에게 임하게 되면, 이것은 기독교의 부흥을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그들의 설교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권면으로 마무리하고 있다.¹¹⁷⁾

뉴잉글랜드의 청교도 윌리엄 쿠퍼(William Cooper) 역시 설교와 부흥이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뉴잉글랜드에서 일어난 제 1차 대각성(the First Great Awakening)을 목격하고 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The Distinguishing Marks*의 서문에서 이 대각성은 청교도 선조들이 오랫동안 고대해왔던 것의 실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많은 설교자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가…그들은 비범한 열심과 근면함으로 이곳 저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설교하고 있다”¹¹⁸⁾고 쓰고 있다. 그들의 메시지는 핵심적인 개혁주의 교리들이었으며, 그들의 설교 방식은 “설득력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고전 2:4), 오히려 “그들의 입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았고, 바위를 산산조각 내는 망치와 같았다”¹¹⁹⁾고 기술한다. 쿠퍼는 설교자들에게 임한 성령은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와 영혼들을 향한 열렬한 사랑”으로 뜨겁게 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들의 수고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증언한다.¹²⁰⁾

웨일즈 칼빈주의 감리교도들(the Welsh Calvinistic Methodists)의 부흥에 대한 이해와 저술들 역시 로이드 존스에게 부흥과 설교 간의 긴밀한 관계 뿐 아니라, 평범한 설교자 위에 임하는 특별한 기름부으심,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의 설교사역이 청중에게 미치는 비상한 결과 등에 관한 풍부한 자료들을 제공해주었다. 예를 들어, 윌리엄 윌리엄즈(William Williams of Swansea)는 자신의 책 *Welsh Calvinistic Methodism*에서 1779년, 1791년, 그리고 1818년에 웨일즈에서 발생했던 일련의 부흥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의 설명에 따르면 대부분의 부흥의 시작은 설교자들 위에 홀연히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서 비롯되었다. 그 결과, 설교자들은 그들의 능력과 감정, 그리고 표현에 있어서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설교하게 되었다. 청중들 역시 설교자들의 설교 행위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즉각적으로 느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러한 새로워진 설교들을 통해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처럼 로이드 존스가 갖고 있었던 설교와 부흥과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믿음,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는 설교자 위에 성령의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확신은 17, 18세기의 청교도들과 칼빈주의 감리교도들의 설교와 저작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물론 로이드 존스는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 설교의 과정에 있어서 설교자와 청중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조명(illuminating)과도 같은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을 다루고 있는 부분도 있다.¹²¹⁾ 그러나 로이드 존스는 설교문과 설교 행위를 구분함

114) Ibid., 38.

115) Ibid., 39.

116) Ibid., 42.

117) Ibid., 53.

118) Jonathan Edwards, *The Great Awakening*,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Ed. Kenneth P. Minkema et a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7-2009), 4:218.

119) Ibid, 4:218.

120) Ibid., 4:218.

121) David Barbee 에 따르면 개혁주의 전통은 설교자가 설교문을 준비할 때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설교가 행해질 때 설교의 언어들을 청중의 특별한 상황에 적용시켜 주는 성령의 조명의 역사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David M. Barbee, “The Allurer of the Soul: The Holy Spirit in Puritan Preaching,” in *The Holy Spirit and the Christian Life: Historical, Interdisciplinary, and Renewal Perspectives*, (New York:

으로써, 설교자와 설교 행위 위에 임하는 성령의 비상한 역사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와 같은 로이드 존스의 설교학의 독특성은 그의 설교학이 개혁주의 부흥 신학에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의 부흥을 향한 열망이라고 하는 매트릭스 안에서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의 설교학이 성령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¹²²⁾ 그 성령론의 중심에는 부흥에 대한 그의 이해와 열망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로이드 존스는 진정한 설교(혹은 사도적 설교)의 이상적인 모델—“불붙은 신학”—을 17세기의 청교도들의 설교가 아닌, 18세기의 부흥의 시기에 활동했던 조지 윗필드, 다니엘 롤랜드, 그리고 하웰 해리스와 같은 칼빈주의 감리교도들의 강력한 설교 사역의 역사에서 발견하였다는 사실이다. 청교도 설교에 대해 로이드 존스는 “항상 다소 양면적인”¹²³⁾ 태도를 취했다. 그는 청교도 설교의 강해적이며 교리적인 강조를 높이 평가하면서도,¹²⁴⁾ 청교도들은 “본질적으로 교사들이며…설교자들이 아니다”¹²⁵⁾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17세기 청교도들이 스콜라 철학에 영향을 받았으며,¹²⁶⁾ 그들에게는 성령의 자유, 즉흥성(spontaneity), 그리고 감정의 요소들이 부족하다고 평가한다.¹²⁷⁾ 이와는 대조적으로, 18세기 칼빈주의 감리교도들의 설교는 개혁주의 교리(신학/빛/지성)와 성령의 능력(불/열/마음)의 조합이 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았다. 로이드 존스는 이와 같은 이상적인 조합이야말로 신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사도적 설교의 본질이며, 이러한 종류의 설교가 교회와 이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에드워즈에게서도 이와 같은 “이상적인 조합—위대한 교리들과 그 위에 임하는 성령의 불”¹²⁸⁾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에드워즈는 비록 회중주의자(a Congregationalist)이지만 칼빈주의 감리교도로 불려져야 한다고 말한다.¹²⁹⁾

로이드 존스는 한편으로는 설교자들에게 “청교도의 설교 방식을 따라 복음을 온전하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설교하는 일반적인 사역”¹³⁰⁾을 계속하라고 권면한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는 또한 설교자들에게 18세기의 부흥의 시기에 나타났던 것처럼 그들의 설교 사역 위에 동일한 성령의 부임이 있기를 지속적으로 기대하고 추구하라고 요청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로이드 존스는 “존 칼빈에게는 조지 윗필드가 항상 필요하다”라는 자신의 명제처럼, 청교도의 방식을 따른 강해적이며 교리적인 설교 위에, 칼빈주의 감리교도들이 그들의 설교 사역 가운데 누렸던 강력한 성령의 부임이 있을 때, 이러한 설교야말로 진정한 설교로 간주될 수 있다고 믿었다.

III. 나가는 글

성령 세례(혹은 부흥)가 긴급히 필요하다는 로이드 존스의 인식은 그의 평생의 영적 부담이었다. 1859년에 있었던 웨일즈 부흥 백 주년을 기념하며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했던 설교 “A

Palgrave Macmillan, 2014), 111.

122) Sargent, *The Sacred Anointing*, xii.

123) John Coffey, “Lloyd-Jones and the Protestant Past,” in *Engaging with Martyn Lloyd-Jones: The Life and Legacy of “the Doctor,”* edited by Andrew Atherstone and David Ceri Jones, (Nottingham, England: InterVarsity, 2011), 315.

124) 청교도 설교에 대한 로이드 존스의 높은 평가는 1977년 웨스트민스터 컨퍼런스에서 했던 그의 강연 “Preaching”에 잘 드러난다(Lloyd-Jones, *The Puritans*, 372-89).

125) D. Martyn Lloyd-Jones, *Knowing the Times: Addresses Delivered on Various Occasions 1942-1977*, (Edinburgh: Banner of Truth, 1989), 269.

126) Lloyd-Jones, *The Puritans*, 350.

127) *Ibid.*, 13, 205.

128) *Ibid.*, 368.

129) *Ibid.*, 205.

130) *Ibid.*, 20.

Burden for Revival”에서 로이드 존스는 선지자 이사야의 마음 속에 있던 시온의 회복에 대한 부담감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시온의 (황폐한) 상태는 그[이사야]의 유일한 관심, 그의 삶의 열정, 그리고 그가 항상 이야기하는 유일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영혼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항상 부흥이 일어났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숫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이러한 방식으로 마음의 부담감을 심어주셨습니다...그는 그것[시온의 회복, 즉 부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것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며, 사람들에게 그것을 숙고해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놀랍게도,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에 관한 진실이었습니다.¹³¹⁾

로이드 존스는 자기 자신이 이와 같은 선지자 이사야의 모습처럼, 그의 설교 사역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교회에 부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영적 부담을 짊어지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부흥을 설교했으며, 청중들에게 부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기를 권면했을 뿐 아니라, 부흥을 위해 열렬히 기도할 것을 당부했다. 즉, 부흥이야말로 로이드 존스의 설교의 본질이었다고 할 수 있다.

로이드 존스는 “성령의 동력(energizing power)없이 하나님의 일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¹³²⁾이야말로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보았다. 특히 설교자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설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비상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부재하다는 사실에 그는 안타까워했다.¹³³⁾ 이처럼 설교자들이 그들의 설교 사역 가운데 임하는 비정상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로이드 존스의 열망은 그의 성령 세례의 설교학적 함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늘날 유럽, 미국, 캐나다, 그리고 한국의 교회들은 지속적인 숫자의 감소와 세상에 대한 영향력의 축소를 겪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단지 외형적인 숫자와 교회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와 영적 성장의 문제이다. 지속적인 수의 감소는 부분적으로는 설교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에 대한 경시가 가져온 설교의 변혁적(transformative) 능력의 감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설교는 청교도들이 믿었던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모으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나가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방식이다. 따라서 설교가 성령의 역사를 통한 그 능력을 회복한다면, 설교는 하나님이 설계하신대로 지속적인 회심과 영적인 변화, 그리고 영적 성장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설교 사역에 있어서 성령으로의 세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로이드 존스의 신념은 오늘날의 설교자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설교학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오늘날 설교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단지 지적(intellectual)이거나 피상적인 지식에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경험적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거룩, 능력, 그리고 그분의 영원하신 사랑에 대한 보다 더 깊은 경험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해준다. 웨슬리, 윌필드, 해리스, 스피전 등과 같은 18, 19세기의 위대한 설교자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과 그들의 죄의 용서를 단지 지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았다. 이들 모두는 성령의 심오한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과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적으로, 실존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그리고 강력한 능력을 반복적으로 체험했다. 로이드 존스 자신도 이와 같은 성령의 심오한 체험들을 여러 차례 가졌다. 따라서 설교자들은 과거의 위대한 전도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구원의 온전한 확신 뿐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131) Lloyd-Jones, *Revival*, 257-58.

132) Iain H. Murray, *David Martyn Lloyd-Jones: The Fight of Faith, 1939-1981*, (Edinburgh: Banner of Truth, 2009), 387.

133) *Ibid.*, 386.

에 대한 확신을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 충만하게 향유함으로써, 그들의 설교 사역에 있어서 위로부터 임하는 담대함, 자유, 권위, 그리고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열망해야 한다.

또한 설교 사역에 있어서 성령 세례의 필요성에 대한 로이드 존스의 강조는 인간적 요인(a human agent)으로서 설교자는 설교 사역을 행하기에 근본적으로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역설한다. 설교학자 마이클 놀즈(Michael Knowles)는 설교자들은 자신들과 청중들이 갈망하는 영적 변화들을 만들어내기에는 자신들이 근본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며, 그들의 설교 사역을 위해서 “제한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해야 하는 필연적인 필요(a corollary need)”를 확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³⁴⁾ 로이드 존스가 “성령의 능력의 그 실재를 믿지 않거나 알지 못한다면, 이것[설교사역]은 매우 낙심되는 일(a heart-breaking task)일 것이다”¹³⁵⁾라고 말한 것처럼,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설교를 통해 청중의 영적 변화를 성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설교자가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함으로써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그의 설교가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하심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부으심은 진리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한(authenticate) 목적으로 설교자를 위로부터 임하는 권위와 능력으로 입혀 줌으로써, 설교자로 하여금 성령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게끔 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로이드 존스는 “이 하나 밖에 없는 유일한 메시지의 진리를 확증하고, 증명해주는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부으심이야말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다”¹³⁶⁾라고 설교했다.

결국, 설교자들에게 가장 긴급한 필요는 최신의 방법론이나 새로운 메시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설교 사역을 지탱해주는 영적인 “불”과 새 언약적 능력의 참된 원천인 “옛 수원”으로 되돌아 가는 것이다. 이 옛 수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로이드 존스가 말했던 성령으로의 세례, 즉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며,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새롭게,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교회들이 쇠락해가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설교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거대한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해,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거듭해서 채워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의 필요에 대한 확신은 오늘날 설교자들에게 성경을 충실하게 강해하는 일에 전념하면서도, 단지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에 만족하지 말고, 설교 사역 가운데 비상한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고 이를 위해 간구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여전히 역설하고 있다.

■ 참고문헌 ■

- Atherstone, Andrew, et al. “Lloyd-Jones and the Charismatic Controversy.” In *Engaging with Martyn Lloyd-Jones: The Life and Legacy of “the Doctor,”* edited by Andrew Atherstone and David Ceri Jones, 114-55. Nottingham, England: InterVarsity, 2011.
- Barbee, David M. “The Allurer of the Soul: The Holy Spirit in Puritan Preaching.” In *The Holy Spirit and the Christian Life: Historical, Interdisciplinary, and Renewal Perspectives*, 111-24.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4.
- Crawford, Michael J. *Seasons of Grace: Colonial New England’s Revival Tradition in Its British Context*. Religion in America Ser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 Edwards, Jonatha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Ed. Kenneth P. Minkema et al. 26 vols.

134) Michael P. Knowles, *Of Seeds and the People of God: Preaching as Parable, Crucifixion, and Testimony*, (Eugene, OR: Cascade, 2015), 111.

135) Lloyd-Jones, *Preaching and Preachers*, 315.

136) Sargent, *The Sacred Anointing*, 276-77.

-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7–2009.
- Haykin, Michael A. G. *Jonathan Edwards: The Holy Spirit in Revival*. Darlington, England: Evangelical, 2006.
- Howe, John.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Or, the Prosperous State of the Christian Interest Before the End of Time, By a Plentiful Effusion of the Holy Spirit*. London: Religious Tract Society, 1835.
- Knowles, Michael P. *Of Seeds and the People of God: Preaching as Parable, Crucifixion, and Testimony*. Eugene, OR: Cascade, 2015.
- Lawson, Steven J. *The Passionate Preaching of Martyn Lloyd–Jones*. Sanford, FL: Reformation Trust, 2016.
- Lloyd–Jones, David Martyn. *Joy Unspeakable: Power and Renewal in the Holy Spirit*. Wheaton, IL: Harold Shaw, 2000.
- Lloyd–Jones, David Martyn. *Knowing the Times: Addresses Delivered on Various Occasions 1942–1977*. Edinburgh: Banner of Truth, 1989.
- Lloyd–Jones, David Martyn. *Preaching and Preachers*. Ministry Resources Library Series. Grand Rapids: Zondervan, 1972.
- Lloyd–Jones, David Martyn. *Prove All Things*. Eastbourne: Kingsway, 1985.
- Lloyd–Jones, David Martyn. *The Puritans: Their Origins and Successors*. Edinburgh: Banner of Truth, 2014.
- Lloyd–Jones, David Martyn. *Revival*. Wheaton, IL: Crossway, 1987.
- Murray, Iain H. *David Martyn Lloyd–Jones: The Fight of Faith, 1939–1981*. Edinburgh: Banner of Truth, 2009.
- Murray, Iain H. *Lloyd–Jones: Messenger of Grace*. Edinburgh: Banner of Truth, 2008.
- Murray, Iain H. *The Life of Martyn Lloyd–Jones 1899–1981*. Edinburgh: Banner of Truth, 2013.
- Packer, James I. *A Quest for Godliness: The Puritan Vision of the Christian Life*. Wheaton, IL: Crossway, 2010.
- Park, Wan-Chul. “The Integration of the Word and Experience in the Preaching of David Martyn Lloyd–Jones.” *Journal of Reformed Theology* 24 (2006) 517–78.
- Perkins, William. *The Art of Prophesying*. 1592. Reprint, [s. n.]: Pavlik, 2012. Kindle edition.
- Sargent, Tony. *The Sacred Anointing: The Preaching of Dr. Martyn Lloyd–Jones*. Wheaton, IL: Crossway, 1994.
- Smart, Robert Davis. *Jonathan Edwards’s Apologetic for the Great Awakening*. Grand Rapids: Reformation Heritage, 2011.
- Stoddard, Solomon. *The Efficacy of the Fear of Hell to Restrain Men from Sin*. Boston: Thomas Fleet, 1713.
- Williams, William. *Welsh Calvinistic Methodism: A Historical Sketch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Wales*. 2nd ed. London: Presbyterian Church of England, 1884.

■ Abstract ■

A Study on Martyn Lloyd-Jones’ Understanding of Spirit Baptism and True Preaching

Dongjin Pa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a comprehensive investigation of both Lloyd-Jones' conviction on Spirit baptism and its close connection with his homiletics. Lloyd-Jones' doctrine of Spirit baptism stems from the Reformed doctrine related to assurance of salvation and revival, which had been propagated from the sixteenth to the nineteenth centuries, rather than being indebted to Pentecostal or Charismatic doctrines. At the same time, his doctrine of Spirit baptism is a thoughtful re-appropriation of the older doctrines within the context of his own day, rather than a simple repetition of their original content. His doctrine was shaped, on the one hand, by Puritan spirituality and Welsh revivalism and, on the other, by his personal experience of the Spirit, which served to confirm the doctrinal views that he had gained from these earlier sources. Most of all, his avid reading of the history of revival and his life-long aspiration for revival was the matrix in which his doctrine of Spirit baptism had been formed and developed. The matrix eventually led Lloyd-Jones' doctrine of Spirit baptism and his understanding of true preaching to be distinguished from the Reformed tradition, influencing him to place more emphasis on the exceptional works of the Spirit, including the immediate work of the Spirit apart from the Word. Lloyd-Jones' conviction regarding the necessity of Spirit baptism in true preaching still tells us of the urgent need to return to "the ancient supply," the baptism of the Spirit, aspiring to experience God's eternal love that it conveys, as the true source of spiritual "fire" and the new covenant power in our preaching ministries.

Key Words: Martyn Lloyd-Jones, the Baptism with the Spirit, True Preaching, Calvinistic Methodism, Revival.

웨슬리 설교에 대한 설교학적 관점에서의 연구

박사(서울신학대학교/ 실천신학/ 설교학)

초 록 ■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미 잠시만 버티면 넘어갈 수 있는 질병이 아닌, 앞으로 인류가 안고 살아가야 할 새로운 바탕과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직장, 학교 등의 일상생활 전체의 패턴을 바꾸어 놓았을 뿐 아니라, 나아가 교회운영과 설교, 전도의 구조와 방법까지도 모두 바꾸어 놓았다. 부득이 반강제적으로 비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고, 모든 설교를 유튜브를 통하여 전송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회중들을 만나는 빈도는 극도로 줄어들고, 익명의 인터넷 유저(User)들을 더 많이 접하게 되었다. 결국 이는 많은 설교자들로 하여금 탈회중적인 설교, 익명의 회원들로 부터의 인기를 가늠하게 해주는 조회수와 댓글로 평가받는 설교를 양산하였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웠던 교회는 미래조차 보이지 않게 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이를 타개할 방법 중의 하나로 존 웨슬리의 목회관과 설교문 작성의 원리들을 제시하려고 한다.

학자들, 목회자들 마다 웨슬리를 보는 관점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본 연구자는 웨슬리의 목회와 설교가 공적인 차원보다는 보다 개별적인 차원에 집중되어 있었고, 사회와 교단 전체 보다는 당장 자신이 만나고 있는 바로 그 성도들의 문제위에서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가라는 측면에서 웨슬리를 이해하고 연구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교회가 큰 교회로 부흥하고, 작은 회중이 큰 회중으로 부흥하면서, 개별적인 성결은 사회적 성결이 되어있었고, 회중 개인의 변화는 사회의 전체적인 변화를 선도하고 구성하게 되었다. 최소한 웨슬리는 이 변화와 부흥을 선도하였고, 경험하였으며, 스스로를 웨슬리안이라 부르기를 원하는 우리는 나라의 변화, 세계의 변화를 오늘 우리가 섬기는 작은 교회에서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부흥의 원천은 무엇보다 웨슬리의 설교에 있었음을 전제하고, 그 동안 수천, 수만의 학자들, 목회자들, 웨슬리안 성도들은 그의 설교를 연구해왔다. 그러나 대부분이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의 연구에만 치우쳐 있었기에, 능력있는 콘텐츠들이 병 안에 담긴 채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자기 PR시대, 좋은 콘텐츠 PR시대’를 맞아 웨슬리의 신학과 신앙의 콘텐츠들이 웨슬리에 의해 어떠한 방법으로 설교문 안으로 전달되었는지 분석하고, 연구하고, 연습하고, 실행하여, 한국교회 강단이 회복하고, 성도들이 다시 모이며, 웨슬리가 경험한 부흥이 다시 한 번 재현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코로나19, 뉴노멀시대, 웨슬리안, 귀납적 주제설교, 회중중심적 설교

I. 말

본 연구는 길어지는 코로나19가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Pandemic)이 되어 버리고,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상황이기를 바랐던 교회와 강단의 붕괴상황을 뉴노멀(New Normal)¹³⁷⁾로 받아들이고, 안착시키며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가용한 돌파구를 존 웨슬리의 설교에 대한 설교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찾아보는 데에 연구목적이 있다.

지금처럼 압도적으로 암담한 현실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한 우리 교회들이 택한 최선의 대책은 일단 유튜브(YouTube) 또는 줌(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설교를 내보내는 것이었다. 이는 사실상 교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었고, 유일한 대책이자 대안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는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교인들을 중심으로 개교회 성도들에게 영상설교가 익숙해지도록 하는 데에 교회들은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설교영상에 붙게 되는 조회수와 댓글들이 담당교역자의 설교를 넘어서, 그 목회자의 인기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처럼 비추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결국 담임목회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특정위치에 사는 특정회중들에게 맞춰진 설교가 아닌, 자신의 설교를 듣게 될 가능성이 있는 일반적이고, 다양한 사람들의 상황과 필요에로 집중력이 점차 옮겨지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자신에게 맡겨진 특정 회중들의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전문의들은 사라져가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모든 것을 하는 각종 의학개론과목들을 담당하는 의대교수들이 되어가고 있다. 물론 모든 목회자들은 동네 가정의학과처럼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반적인 영적인 질병들을 다룰 수 있는 의사이기도 해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그 동네의 특정주민들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그들에게서 두루 나타나는 특정질병들에 대해서만큼은 매우 전문적인 특정 질병 군들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물론 특수 전문의로서의 기능에 집중하다 보면 토마스 룬이 말한 ‘목양자’ 메타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이는 김운용이 표현한 것처럼 이러한 방향은 개인들의 곤경 상황에 대해 해결책과 회복이 보다 빠른 시간 안에 주어질 수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공적 영역과 나아가 공동체에 대한 차원이 약화되기 쉽고, 복음을 개인적 차원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약점을 가지게 된다.¹³⁸⁾ 이러한 경우에 많은 목회자들이 개교회의 회중들에게만 함몰된 나머지 그들의 세세한 문제들을 놓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많은 경우 답을 찾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회중들 까지도 깊은 영적인 패닉에 빠질 수도 있다.¹³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가장 위로를 많이 경험해왔던 시대를 찾으면, 성도들이 듣던 말든, 고상한 ‘말씀의 전령’들이 전문적이고 어려운 단어들로 교회를 잠재우던 정통주의 시대도 아니고, 교회는 신음하며 죽어 가는데, 이제는 설교자보다 유튜브 스타들이 더욱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금의 시대도 아니었다. 본 연구자는 위로와 부흥의 말씀이 있던 시대를 웨슬리 시대에서 발견하였고, 공적인 차원에서 조금은 더 개별적인 차원으로의 목회가 필요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목회에 대한 대안으로서 웨슬리의 설교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 한 가지 집중할 부분은 웨슬리의 설교방법 그 자체이다. 감리교도들을 비롯하여 존 웨슬리의 후예를 자처하고 있는 몇몇 교단들이 존 웨슬리에 대하여 매우 집중력 있는

137) 오현철, “뉴노멀 시대 설교의 변화,” 『복음과 실천신학』 119(2020), 117-44.

138) 김운용, “증언의 관점에서 본 설교에 대한 신학적 이해: 토마스 룬의 설교 신학적 이해를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73(2021), 98.

139) 토마스 룬/ 정장복, 김운용 역, 『증언으로서의 설교』 (서울: 쿤란출판사, 1998), 59.

연구를 해온 것은 사실이다. 다양한 방향과 방법으로 웨슬리가 연구되었지만, 가장 심도 있는 수준에서의 연구논문이 주로 박사학위논문에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여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의 웨슬리에 대한 연구는 조직신학적인 관점에 특화되어 연구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¹⁴⁰⁾ 그리고 이러한 웨슬리에 대한 그 동안의 조직신학적인 연구들이 학교와 세미나, 학술지, 신학잡지 및 각종 특강들을 통하여 최소한 감리교 내에서는 비교적 잘 전수되고 있었음을 감안한다면¹⁴¹⁾, 오히려 지금의 웨슬리안들의 교회와 강단이 웨슬리처럼 부흥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웨슬리가 그의 신학과 철학으로만 부흥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물론 조직신학적인 연구가 완성하지 못한 웨슬리에 대한 연구가 비단 설교학적인 연구뿐 만은 아닐 것이고, 설교학적인 연구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1900년도 후반의 웨슬리안이라 부를 수 있는 많은 교회들이 내적, 외적 큰 부흥을 경험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내용과 전달’이라는 스피치의 양 날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전달’, 즉 웨슬리의 설교에서 그동안 거의 연구되지 않은 설교학적인 측면에서의 특징들을 분석하고 정리함으로써 이전보다 한층 더 웨슬리적인 부흥을 재현할 수 있는 가능성에 한 걸음 가까이 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논문에 임한다. 이를 통하여 보다 균형 잡히고, 보다 신속한 웨슬리적 회복과 부흥을 견인하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심화된 한국교회 강단의 회복을 기대한다.

II. 목회와 부흥

1. 웨슬리의 목회와 중심

웨슬리는 영국국교회의 미움과 시기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까지 회중들의 삶 안으로 비집고 들어갔고, 그들의 고통의 장소에서, 그들의 신음소리 위에서, 그 정점에는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의 무덤위에 서서까지 설교를 해야 했던 회중의 삶에 깊이 참여한 목회자이자 설교자였다.¹⁴²⁾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웨슬리의 설교 150편을 내용상으로 분석해 볼 때에, 그의 설교의 50%정도가 구원론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는 철저한 구원론 중심의 주제설교자였다. 그러다보니 굳이 성경전체를 골고루 다루지 않았고, 성경전체를 가르치는 것도 목표가 아니었으며, 언제나 당장 눈앞에 있는 회중이 누구인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면 바로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였다. 이는 구약이 신약보다 12권이냐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을 본문으로 설교한 횟수가 구약보다 3배나 많다는 점, 마태복음과 로마서 본문을 설교한 횟수가 구약성경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횟수 전체를 더한 것 보다 많은 점 등에서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나아가 그의 설교내용 뿐이 아니라, 설교제목들만 보더라도 그의 설교가 얼마나 해당 시기, 해당 지역, 해당 성도들의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답을 내놓기에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¹⁴³⁾

140) 조직신학 43편, 설교학 1편, 전도학 4편, 구약학 1편, 교회사 1편, 예배학 2편, 역사신학 4편 등.

141) 남모세, “존 웨슬리의 설교와 현대적 적용에 대한 연구,” (서울신학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130.

142) Boraine, Alexander L., "The Nature of Evangelism in the Theology and Practice of John Wesley," (Ph. D. diss., Drew University, 1969), 22.

143) ‘험담의 치료,’ ‘금전의 사용,’ ‘생활방식의 개혁,’ ‘조지헛필드 목사의 서거에 대하여,’ ‘최근 북미에서의 하나님의 사역,’ ‘옥스퍼드의 위선,’ ‘비난받는 대중오락에 대하여’ 등.

당시에는 누가 보아도 웨슬리는 모두의, 모두를 위한 설교자가 아니었고, 당장에 그의 눈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성도들만의 질문 앞에선 회중 중심적 설교자처럼 보였다. 그러나 웨슬리라는 인물이 나타나고 지나간 지 300여년이 지난 지금, 그는 오히려 시대를 아우르는 설교자, 개인과 상황을 뛰어넘는 대중들의 설교자로 불리고 있다. 웨슬리가 이끈 사회적 성결은 공적인 영역에서의 사회보다는 지역의 개개인들에게 외쳐지는 소리였고, 개개인들의 성결들이 모여져 큰 불이 되었을 때에 결과적으로 약한 사회적 관습이 끊어지고, 공중적 죄악이 사라지는 일이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이 모여 사회가 되고, 개인의 죄악이 모여 사회의 죄악, 사회의 죄악이 연속되면, 역사의 죄악이 되기 때문이다.¹⁴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보다 대중적이고, 보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시각에 집중하여 유튜브 스타가 되기를 꿈꾸는 목회자들이 있다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지금 웨슬리안 목회자들이 다시 집중하고 회복해야 하는 회중은 혹시라도 내 설교를 좋아할지도 모르는 가상의 회중이 아니라, 당장 내 손에 닿아있는 죽어가는 내 교회 성도들이다. 이때에 단기간에는 내가 매일 섬기는 그 교회 성도들만 살아나고, 내가 만나고 있는 그 회중들의 교회만 부흥할 것 같지만, 이 시간이 지속되고, 깊이가 더해지면, 결국에는 웨슬리가 경험한 큰 단위에서의 사회적 회복, 공중적 부흥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2. 웨슬리가 경험한 부흥

웨슬리는 2가지 측면에서의 부흥을 모두 경험하였다. 첫 번째로 웨슬리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자체가 변화되는 부흥을 경험하였고, 다음으로는 눈에 보이는 숫자적인 부흥을 경험하였다. 가장 건강한 부흥이라 함은 바로 이러한 내적인 변화에서 외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전 세계, 전 시대를 통틀어 우리 모두가 원했던 바로 그 부흥의 표본일 것이다.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혹시나 설교의 유튜브 조회수는 높아질지는 몰라도, 출석, 헌금, 전도, 신앙등 전반이 약해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더욱 필요한 부흥일 것이다.

먼저 웨슬리는 그의 설교를 통하여 회중들의 ‘내적인 부흥’을 경험하였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말씀을 들은 회중들, 더 자세히 말하면 ‘사람’ 그 자체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웨슬리의 설교를 듣고 변화된 사람들은 그들의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켰고, 무기력 하던 당시 교회들을 갱신시켰으며, 죄로 뒤덮였던 사회를 정화하기 시작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마티아스 조이스(Mattias Joyce)라는 사람은 19세에 웨슬리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였으며, 후에 웨슬리의 설교자들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는 가톨릭교도로 살아오면서 이미 성경에 대해 알았고, 어느 정도 경건한 삶의 모습도 있었지만, 웨슬리의 설교를 듣고 비로소 자신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그는 웨슬리의 설교를 통해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구원을 경험하며, 기쁨과 감격으로 평생 말씀을 전하며 살았다. 존 넬슨(John Nelson)이라는 사람은 늘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1739년 무어필즈(Moorfields)에서 웨슬리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과 위안을 경험하게 되었다.¹⁴⁵⁾ 또한 엄청

144) 변영서, “십자가의 전략,” 『신학과 세계』 20(1935), 10.

145) John Telford, *Wesley's Veterans: Lives of Early Methodist Preachers Told by Themselves*, vol 7, (Salem, Ohio: Schmull Publishers, n.d.), 191.

난 술고래였던 이발사중의 한명은 웨슬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화되어, 그 때부터 술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술만 끊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술을 원하는 마음마저도 없애주셨다고 고백했다. 그는 앞선 인물들과는 다르게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하나님을 만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았다고 한다.¹⁴⁶⁾ 특이할만한 점은 웨슬리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은 많은 경우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웨슬리는 외적인 부흥, 숫자적인 부흥, 사이즈의 부흥도 경험하였다. 메소디스트의 시작점을 여러 곳에서 학자들이 찾지만, 1739년말 브리스톨에서 8-10명의 사람들이 웨슬리를 찾아와서 앞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에 모일 것을 정한 그 모임을 첫 시작점으로 본다면, 약 8명에서 시작한 메소디스트 회원은 1767년 의사록(Minutes)에 따르면 회원이 25,911명이 되고, 1791년에는 무려 136,62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¹⁴⁷⁾ 외적인 부흥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분명하고도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메소디스트 회원숫자의 변화일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서도 여전히 부흥을 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는 헌금, 각종 봉사활동의 여부보다도 여전히 등록성도수, 출석성도수 일 것이고, 웨슬리는 이 부분에서 분명한 부흥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웨슬리의 설교를 통하여 일어난 내적인 부흥과 외적인 부흥의 놀라운 기록들은 그의 일기와 여러 의사록들을 넘어 수많은 당시의 주변 인물들과 기록들에서도 충분히 발견된다. 역사 속에서 종종 순간적인 인기와 퍼포먼스로 대중들을 압도하고, 운집하게 만든 설교자들이 더러 발견되지만, 언제나 그러하듯, 내적인 부흥이 수반되지 않은 외적인 부흥은 한 세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종말을 고하였다. 그러나 웨슬리를 통하여 나타난 부흥은 힘 있게 다음 세대를 리드하였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였다.

III. 설교전달

그 동안의 웨슬리에 대한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못했던 스피치의 양 날개 ‘내용과 전달’에서 웨슬리의 설교에 나타나는 ‘전달’면에서의 특징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철학자들, 신학자들이 내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종종 수단의 가치와 능력은 필요 이상으로 폄하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과오를 범해왔다. 그러나 이제 소위 말하는 ‘자기 PR(Public Relation)이 능력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는 자기 PR의 이유와 자기 PR의 수 천, 수 만 가지 방법론을 쏟아내는 각종 서적들의 판매량만 보더라도 이제 시대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책들은 우리가 아무리 내적인 콘텐츠가 충분하고, 검증 가능한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 사실과 가치를 외부에 제대로 전달하거나 알리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콘텐츠는 무용지물이 되고 사장(死藏)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웨슬리의 부흥은 콘텐츠만의 승리라고 볼 수 없다. 웨슬리의 능력은 그의 내적인 영역, 즉 콘텐츠에 분명히 우선적으로 있어야 했겠지만, 그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글로 옮겨냈고, 표현하였는지는, 설교학적인 눈을 가지고 그의 설교를 자세

146) W. Reginald Ward and Richard P. Heitzenrater, eds., *The Works of John Wesley, Bicentennial, vol. 19, Journals and Diaries IV*,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2), 3:383.

147) 알버트 아우틀러/조종남 역, 『웨슬리 설교해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88.

히 분석하지 않으면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아쉬운 것은 설교를 전달함에 있어서 설교문의 분석과 함께 그의 실제 설교하는 모습, 억양, 제스처(gesture), 발음, 톤, 빠르기등을 함께 분석해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의 설교밖에 없으며 그의 설교문에 한정하여 분석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1. 웨슬리 설교의 내용적인 특징

웨슬리의 설교문에 나타나는 내용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웨슬리 설교의 내용은 매우 철저히 성경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후대에 의해서도 철저한 ‘성경적 설교자’로 평가되어왔다. 그러나 현대에 주류가 되고 있는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에 신앙의 중심을 두지 않고, 인문학이나 공동체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나아가 성경을 여러 권위들 중의 하나 정도로 그 위치를 축소시키고 있는 것을 볼 때에¹⁴⁸⁾ 현재의 교회들에게 강력하게 요청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웨슬리는 『표준 설교집』(Standard Sermons)의 서문에 이렇게 기록한다. “나는 한 가지 일 즉 하늘가는 길(the way to heaven)을 알고자 한다. 저 행복한 언덕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를 수 있는지를 알기 원한다. 하나님 자신은 겸손히 그 길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가 하늘로부터 오셨으며, 그는 그것을 한 권의 책에 다 기록하셨다. 오! 그 책을 나에게 주소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에게 그 하나님의 책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를 위한 충분한 지식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 한 책의 사람(homo unius libri)이 되게 하소서.”¹⁴⁹⁾ 그리고 The New Testament With Explanatory Notes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성서는 하늘의 지혜가 솟아오르는 천상의 샘이며 그 물의 참맛을 아는 자는 아무리 지혜와 학식이 뛰어나고 경건한 사람이 쓴 책이라 하더라도 세상의 책보다 성서를 더 귀중하게 여기게 된다.”¹⁵⁰⁾ 나아가 그의 일기에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다. “나의 근원은 성서이다. 그렇다. 나는 성서 하나밖에 모르는 성서 고집쟁이(a bible-bigot)이다. 나는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에 있어서 성서를 따른다.”¹⁵¹⁾ 웨슬리의 설교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주제설교의 요소를 따르는 것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의 설교의 내용이나 소스들이 자칫 성경 외적인 부분에서 많이 차용되었을 것으로 오해될 수 있지만, 사실 그의 설교는 주로 강해설교에서 나타날 법한 보수적인 특성들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⁵²⁾ 웨슬리의 설교들은 설교 한 편당 구약성서본문은 5.1개, 신약성서본문은 23.8개를 평균적으로 인용한 것으로 나온다. 예를 들어 성경본문을 가장 많이 인용한 경우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은혜의 수단”에서는 본문이 100개 이상 인용되었고, “성서적인 기독교”에서는 129회 인용되었다.¹⁵³⁾ 웨슬리의 설교는 성경을 통째로 옮겨놓은 거

148) 최영현, “다문화 상황에서 이머징(교회운동) 설교의 가능성과 신학적 의미,” 『제51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 학술대회 발표자료집』(2014), 376.

149) Albert C. Outler, ed., *The Works of John Wesley, Bicentennial ed., vol. 1-4, Sermons*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84-1987), 3.

150) John Wesley, *The New Testament With Explanatory Notes* (London: Nicholson, n. d.), 7.

151) John Wesley, *The Journal of the Rev. John Wesley*, A. M. Edited by Nehemiah Curnock, 8vols. (London: Epworth Press, 1938), 38. (이하 *Journal*로 약함)

152) 박문석, “강해적 내러티브 설교에 대한 실천적 방향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72(2020), 147.

153) John Wesley, *Wesley's Standard Sermons, ed. and annotated by Edwin H. Sugden, 3rd. ed., 2vols.* (Nashville: Lamer and Varten, 1954), 30.

대한 성경해설서로 보일 정도인데, 그의 설교 메시지는 성경에서 시작하고, 증명하며, 결론을 내리고, 적용에 이르게 한다. 웨슬리가 아무리 회중중심적인 설교자라 할지라도 회중들의 삶에 대한 모든 문제의 원인도 성경에서 근원을 찾아내고, 구체적인 삶의 해결책 또한 모두 성경에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하인리히 불링거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는데¹⁵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웨슬리처럼 성서를 완전히 하나님의 책으로 받아들이고, 인생의 모든 문제와 해결책도 그 안에서 찾아내야 한다고 말한다.

둘째, 웨슬리는 전체적으로 교리적인 대주제를 핵심에 두고 설교를 준비하였다. 웨슬리는 그의 노년에 메소디스트의 생명인 <교리와 정신 그리고 훈련>을 확고하게 붙들지 않는다면, 메소디스트도 결국에는 능력이 없이 형태만 유지되는 죽은 종파(dead sect) 될 것’이라고 하였다¹⁵⁵). 회중들을 위하는 목회자라면, 힘들더라도 반드시 교리에 대한 집중력과 에너지를 유지해야함을 천명하였다. 나아가 웨슬리의 논증적이고 논리적인 성향에서 비롯된 성서를 읽는 눈은 대부분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 에너지를 쏟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경말씀들을 교리적인 눈으로 바라보았고, 이를 동일한 눈으로 회중들에게 설명하는 데에 이르게 하였다. 이는 표준설교집 뿐만이 아니라 그의 설교 150편 전체를 보더라도 대주제에 있어서 ‘교리’적인 설교로 분류될 수 있는 설교가 94편에 이르게 하였다. 사실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리’라는 단어부터 이미 회중들의 삶과는 매우 이질적일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우리는 이 부분부터 적극적으로 불식시켜야 하는 필요가 있다. 독보적인 회중중심적인 설교자 웨슬리가 그의 회중들에게 설교할 때에 ‘교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의 의미는, ‘교리’야말로 회중들의 삶에 가장 분명한 답과 해결책을 줄 수 있는 통로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심지어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고, 회중들이 구원받고 싶어 하는 태도가 나타날 때에, ‘율법’을 설교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설교방법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깨닫고, 치료약으로서의 ‘복음’이 비로소 의미가 있게 때문이다.¹⁵⁶) 이 과정이 아무리 고단하고, 잠시는 어려워 보일지라도 교리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회중들과 함께 함으로써, 설교자를 통하여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없는 회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웨슬리는 설교주제에 있어서 ‘구원’ 또는 ‘구원론’에 집중하였는데, 이는 성경 각 권을 균형 있게 다루기보다는 특정 성경본문, 방향, 신학, 성구들에 집중하게 하였다. 그의 설교 주제들은 50% 정도가 회개, 거듭남, 의인, 신앙, 성화, 완전과 같은 구원론과 관련된 주제에 집중되어 있음을 앞서 밝혔다. 특별히 표준설교집에 나타나는 주제의 빈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표준설교집은 평신도 설교자들이 설교를 배우고, 앞으로 그들이 해야 하는 설교의 콘텐츠를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표준설교집의 설교에는 가장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편적인 설교주제가 어떠하여야 하는지 그의 신학과 철학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의 표준설교집에 한정해서 그의 성경의 각 권별 사용 빈도를 살펴보더라도 그는 여전히 구약보다는 신약에 비중을 훨씬 많이 두고 설

154) The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Presbyterian Church (U.S.A.), “The Second Helvetic Confession,” in *The Book of Confession, pt. 1,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Louisville: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Presbyterian Church USA, 2002), 53-54.

155) Rupert E. Davies, *The Works of John Wesley, Bicentennial ed., vol. 9, The Methodist Societies: History, Nature and Design*, (Nashville, TN: Abingdon, 1989), 9:440.

156) D. M. Lloyd-Jones, *Romans: An Exposition of Chapter 3:20-4:25, Atonement & Justification*, (Grand Rapids: Ministry Resources Library, 1970), 25.

교하였으며, 그 중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에 매우 집중하여 사용했는데, 무려 1362회 사용을 한다.¹⁵⁷⁾ 설교본문 뿐만이 아니라 인용구에 있어서도 본문의 양적인 균형은 사실 고려되지 않고 있음이 매우 명확해 보인다. 다시 말하면 웨슬리의 설교만큼은 최소한 성경 전체를 고르게 가르치고 설교하는 데에 관심이 없다. 그는 단지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할 것인가’ 라는 목표 한 가지만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였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결국 모든 설교는 반드시 ‘구원’ 을 목표로 하고, 내용에도 ‘구원’ 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회중들의 삶은 매일 매일이 ‘구원’ 이 필요한 거칠고 악한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그의 설교는 대부분 구원론과 관련되어 있지만, 이 메시지를 회중들의 삶 안에 투영하고, 전하는 과정에서, 그의 설교주제는 회중들의 삶만큼이나 다양할 수 있었다.¹⁵⁸⁾ 이를 통해 교리들은 회중들의 삶과 보다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었고, 조직적으로 전달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 회중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 라도, 방법 면에 있어서는 매우 치밀하고 논리적인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그의 설교 시작과 끝 전체에 걸쳐서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귀납적인 순서와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의 설교 150편 전체를 살펴보면, 대부분 대지가 분명히 보이는데, 주제에 따라 각각 분리된 독립된 대지보다는, 귀납적인 흐름을 따라 앞선 대지에 대한 귀납적인 결과로서 따라오는 대지가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웨슬리설교의 전체적인 구성을 볼 때에 그가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음을 알게 해준다.¹⁵⁹⁾ 설교를 준비할 때에 설교의 본문보다는 당장 만나야 하는 회중들에게 당장 필요한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 주제를 선택하였고, 이는 설교의 클라이막스에 ‘그래서 이 말씀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놓이게 하였다. 웨슬리의 설교는 ‘설교를 듣는 회중에게 있어서 이 설교가 그들의 삶에 필요한 주제인지’, 또한 ‘이 주제가 그들에게 이해가 되고, 적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지’, 나아가 ‘시기적으로 적합한 설교인지’, ‘설교가 행해질 장소가 설교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고려해 가며 설교의 주제와 본문을 택하였기 때문에 웨슬리의 설교는 그 당시 회중들에게 더할 수 없이 매력적이고 자신들의 관심사를 정확히 꿰뚫은 명쾌한 설교 일 수밖에 없었다.¹⁶⁰⁾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주변에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한 능력이자 바로 그 매력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으면서도 이미 모여진 인파를 떠나시기도 하셨는데, 그 기준은 ‘천국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였다.(마태복음8장 참고). 예수님은 천국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곳으로 다니셨고, 천국복음은 언제나 회중의 삶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 사마리아여인의 우물가가 그러하였고, 삭개오의 집안이 그러하였고, 베드로의 배안이 그러했다. 이것

157) 마태복음은 (1362회)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히브리서(965회), 요한복음(870회) 누가복음(853회) 고린도전서(779회)를 즐겨 인용하였다. 한편 구약에서는 이사야서가 668회로 가장 많이 인용되었고, 그 뒤를 이어 시편(624회) 예레미야서(208회)가 빈번히 인용되었다. 단일 성구 가운데 웨슬리가 즐겨 인용한 것으로는 마가복음 1장 15절로 190회를 인용하였으며 에베소서 2장 8절(133회), 갈라디아서 6장 14절(129회) 마태복음 16장 26절(117회)등도 빈번히 인용되었다. 구약에서도 이사야 55장 7절(112회), 예레미야 8장 22절(120회) 이사야 55장 6절(90회) 호세아 14장 4절(87회) 시편 141편 3절(72회)등이 즐겨 사용되었다.

158) 예를 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회개, 칭의, 중생, 성화, 믿음, 영생, 천국, 지옥, 기도, 교회, 예배, 사랑, 정의, 성결, 행복, 성숙, 인생문제, 신앙문제, 사회문제와 같이 주제를 분류해서 다양한 주제의 설교가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159) *Journal*, 38.

160) *Journal*, 454.

이 예수님의 패턴이고, 웨슬리가 이어받은 패턴이라면, 메소디스트/웨슬리안은 이 패턴을 이어받아야 할 것이다. 웨슬리안은 회중들의 삶 안에서 질문을 하고, 다시 구원론으로 답하는 것을 회복하여야 한다.

2. 웨슬리 설교의 전달방법상의 특징

웨슬리는 설교를 준비하고, 구성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 시대 유튜브스타를 지향하는 설교자들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과하고 정리되지 않은 퍼포먼스들은 지양하였지만, 반대로 매우 다양한 설교 안에서의 수사학적 기법들을 동원하여 그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웨슬리의 설교문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수사기법이 있다면 이것은 ‘논쟁적 기법’ 일 것이다. 이미 웨슬리가 설교를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다루면서 언급했듯이, 그의 설교는 매우 논리적이고 논증적이며, 한 챕터에서 다음 챕터로 넘어갈 때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귀납적이었다. 이러한 설교적 특성을 가진 설교자들에게서 아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바로 이러한 ‘논쟁적 기법’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자신의 주제를 논리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식할 수밖에 없는 소스가 바로 자신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는 다른 학자나 설교자의 논리가 되는 경우가 많고, 꼭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누구든지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논리들을 미리 차단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충실하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 글을 통하여서도 잘 드러난다. “여기에 대해 본격적인 논쟁을 할 여지도 없이 바울은 그와 같은 주장을 간단히 부정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율법적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고 바울이 말했을 때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오직 종교의식상의 율법이라고 어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상상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말로 충분히 논박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종교의식상의 율법을 굳게 세웠습니까? 그가 그런 율법을 세우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점에서 모든 사람이 그의 생각과 같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곧 크리스찬이란 이름을 붙이고 산 사람들 가운데도 성도들에게 일단 주어진 믿음은 율법 전체를 무용하게 만들도록 되어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열정이 지식에 의한 것입니까? 그들이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살펴본 것일까요?...” 161) 바울의 주장을 꺼내놓고, 결국 바울의 주장을 지지하고, 입증하길 원하면서도 스스로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만한 반대편 논리들을 들여다 놓는다. 그리고 이 둘을 부딪치게 만들고, 이러한 충돌 뒤에 나타나는 웨슬리의 결론은, 반박의 여지가 없거나 덜한 보다 강력해진 메시지로 귀결된다. 이것이 역사가 왜 그토록 ‘헤겔의 정반합의 원리’를 중용하고, 사랑했는지 또 한 번 웨슬리를 통하여 증명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둘째, 웨슬리는 설교를 통하여 말하고 싶은 주제에 대하여 회중이 보다 집중력을 가지고, 설교에 참여하도록 ‘의문문’을 만들어 계속해서 던진다. 이를 테면 “믿음으로 세워진 율법” 설교에서는 의문문이 무려 34번이나 나온다.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쟁을 할 여지도 없이 바울은 그와 같은 주장을 간단히 부정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무용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162)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사용한다. “이런 사람

161) 조종남, 김홍기, 임승안 외, 『웨슬리 설교전집 2』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351.

들의 열정이 지식에 의한 것입니까? 그들이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살펴본 것일까요? 그들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하고 어느 한 가지를 파괴하는 것이 결국 그 둘을 동시에 파괴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고려했을까요? 또한 도덕법을 폐기하는 것이 믿음과 율법을 함께 폐기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며 또한 우리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¹⁶³⁾

이처럼 어떤 경우에는 의문문을 연속해서 3번, 4번 연속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이고, 많은 경우 8번을 연속해서 의문문을 던지기도 한다. 의문문은 특별히 논증적인 기법을 잘 사용하는 설교자들, 그리고 회중들을 설교 안으로 참여시키는 데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설교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다. 회중들이 설교 중에 자신에게 던져진 질문으로 말미암아 한 번 더 해당 주제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고, 설교에 보다 흥미를 가지도록 돕는 데에 아주 주효하다.

셋째, 논증적인 설교기법을 많이 사용하는 설교자들 전체에게서 나타나는 ‘설득기법’은 그의 모든 설교에 걸쳐서 나타난다. 웨슬리는 지나친 몸짓이나 괴상한 소리를 내는 등의 설교를 좋지 않게 평가하였고, 시세로의 수사학이 말하듯이, 웅변의 기술보다는 웅변의 내용을 통하여 청중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하였다.¹⁶⁴⁾ 이는 설교를 ‘선포’로 이해하는가, ‘설득’으로 이해하는가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설교방식이었는데, 웨슬리가 설교를 ‘설득’으로 이해했다는 분명한 기록은 없으나, 그의 설교전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선포’에도 분명히 무게가 있었으나, 방점은 회중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설득’적인 관점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그는 자신이 들고 있는 교리들에 대하여 치열하게 스스로 검증을 해야 했으며, 주변의 신학들과 계속되는 논쟁과 대화들을 쉬지 않아왔다.¹⁶⁵⁾

이러한 노력과 흐름은 설교로 녹아들게 되었고, 그의 모든 설교는 차근차근 회중들을 설득시키는 매우 귀납적이고 설득적인 설교가 될 수 있었다. 이를테면 웨슬리의 설교 “산상설교”에 이러한 부분이 나온다. “그대는 “이런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그것을 견디어 낼까 나는 그런 시험을 견뎌낼 능력이 없는데 나는 그런 강적을 이길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사전에 공포심을 가지기도 쉽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현재에는 그대에게 그대가 예상하는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그런 원수의 공격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그대에게 있는 은혜로는 아직 오지 않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이 온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도 동시에 올 것입니다. 더 큰 시험이 오면 더 큰 능력도 받을 것입니다. 고난이 크면 하나님의 위로도 그만큼 클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정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정황에 따라 풍족할 것입니다... 내일이 오면 그때 가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오늘을 사십시오. 현 시점의 개선을 위해 전력하십시오. 과거는 그대에게 아무 것도 아니며 그것은 없었던 것과 같으며 미래도 아무것도 아니며 이것도 당신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십시오. 한 시각이라도 허송하지 마십시오. 이 시각을 선용하십시오. 이것

162) Ibid., 351.

163) Ibid., 352.

164) 나광현, “포스트모던 상황에서의 설교를 위한 대화적, 협력적 소통을 통한 메시지 창안(invention)이론에 대한 연구,” 『제51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4), 229.

165) 케네스 콜린스/이세형 역, 『존 웨슬리 토크보기』 (서울: 신앙과 지성사, 2003), 257.

만이 그대의 것입니다” .166) 웨슬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포를 시작했지만, 위에서 본 인용처럼, ‘그대는... 나는 그런 강적을 이길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사전에 공포심을 가지기 쉬울 것입니다’ 라고 회중이 생각하고 경험할만한 상황들을 먼저 상상해보았고, 오히려 그것을 회중에게 떠올려줌으로써 자신들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인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그리고 ‘현재에는 그대에게 그대가 예상하는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을지 모릅니다.’ 라는 말로써 그 상황에서 느끼게 될 좌절에 대해서도 먼저 소개해 줌으로써, 이것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인생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같은 아픔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러므로 오늘을 사십시오. 한 시각이라도 허송하지 마십시오. 이 시각을 선용하십시오. 이것만이 그대의 것입니다.’ 라는 말로써 이러한 좌절적인 상황에서도 분명한 해결책이 있음을 제공함으로써 웨슬리의 논리가 웨슬리에게서 끝나지 않고, 회중들의 삶으로써 받아들이는 사건, 즉 구체적인 설득이 일어나게 돕는다. 이러한 친절한 웨슬리의 설득의 작업은 웨슬리의 설교 전체에 걸쳐서 주를 이루는 설교 기법으로 사용된다.

넷째, 웨슬리는 설교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도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 적용했던 원리 즉 후대에 의하여 이름 붙여진 ‘사변형의 신학: Quadrilateral’ 을 동원한 수사기법을 사용하였다. 즉 ‘성서-전통-이성-경험’ 의 과정을 통하여 이해되고 받아들여진 말씀을 다시 회중들에게 전할 때에도 ‘성서-전통-이성-경험’ 적인 4가지 측면 모두에서 설교를 다루려고 노력하였다.

물론 이 4가지 단계를 거치기 전에 반드시 기도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성경을 조명해야 함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기도 하였다. “내가 읽은 것에 대해서 어떤 의문이 있는가? 애매하고 혼란스런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러면 나는 나의 마음을 빛의 아버지에게 엮입니다. 주여, 당신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당신은 기꺼이 주시며 누구도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뜻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그는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당신의 뜻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나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167)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한 후에 웨슬리는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도구로서 반드시 그 무엇도 아닌 성경자체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힌다. “교회는 성서에 근거되어야 하는 것이지, 성서가 교회에 근거되어 있지 않다... 성서는 그 자신을 해석하는 최고의 해석자이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신하기 위해서는 성서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168) 우리가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경의 다른 본문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필요한 성경본문을 해석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성서를 해석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는 초대교회와 교부들과 같은 영적인 스승들에게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웨슬리의 설교와 그의 일기에 이미 웨슬리가 조지 위간(George Wigan), 토마스 아캠프스(Thomas a Kempis), 제레미 테일러(Jeremy Taylor), 윌리엄 로우(William Law)등을 넘어서 여러 교부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증언되어 있으며, 항상 설교안에 교부들의 도움을 구체적으로

166) 조종남, 김흥기, 임승안 외, 『웨슬리 설교전집 2』, 263.

167) John Wesley, *The Works of John Wesley, vol.1*, (Nashville: Abingdon Press, 1984), 106.

168) Ibid., 94.

명시하지는 않더라도, 그의 신학과 해석 안에는 교부들의 영향과 도움을 많이 받았음을 시사 하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많다.¹⁶⁹⁾ “그렇다면 자녀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합니까? 이에 대한 기본이 윌리엄 로의 <경건한 삶으로의 진지한 부르심>에 잘 나타나 있는데 다음은 글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¹⁷⁰⁾ 그리고 윌리엄 로의 글을 설교 안에 인용한다. 또한 웨슬리는 4세기 동방 교회의 교부였던 마카리우스에 대하여 그는 그의 청중을 언제나 감동시키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머리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일치하도록 안내한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¹⁷¹⁾ 그는 교부들에게서 많은 영감을 얻고 있음을 여러 곳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었고, 그들의 성경해석을 그의 설교안으로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그러나 웨슬리는 교부들이 내린 성서해석을 성서에 준하거나 버금가는 정도로 여기지는 않았다. 반드시 그들의 해석은 성경이 본래적으로 스스로 증언하는 해석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에만 교부들의 해석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리도 성서를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혼자서 묵상만 할 것이 아니라, 웨슬리의 시대 이전이나 이후를 포괄하여 권위 있는 성서학자나 설교가들의 성서해석을 충분히 참고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을 시사한다.¹⁷²⁾ 그러나 웨슬리가 그러했듯이 성서가 스스로 증언하는 해석의 범위 안에서만 참고해야 한다.

다음으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이성은 하나님의 은사로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인 통로로 여겼다. 그러나 계몽주의가 이성에게 부여하였던 것처럼 인간의 의식영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이성을 놓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주체로 여기지는 않았고, 하나의 도구(tool)로 여겼다.¹⁷³⁾ 다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인간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정리하고, 맥락을 살피며, 이것을 이해하고, 나아가 누군가에게 다시 그 말씀을 전달하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은사 또는 선물로 이해하였다. 이때의 이성은 인간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타락한 이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조경철은 이렇게 표현한다.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희망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에게 성서가 말하는 믿음의 진리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책임적인 능력이 곧 이성이다. 그러므로 성서해석에 있어서 이성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교회로 하여금 성서를 바로 이해하여 설교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¹⁷⁴⁾

마지막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체험을 통하여 말씀이 증명되고, 이를 통하여 우리는 완전한 이해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169) 웨슬리는 그의 대학시절 그라브(John Ernst Grabe, 1666-1711)의 70인역 연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되는 위간(George Wigan) 교수를 사사했는데 이 만남은 웨슬리로 하여금 주석 설교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웨슬리가 친구약을 주석함에 있어 지나치리만치 성서본문을 세분하여 다루는 것은 바로 위간교수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웨슬리는 다양한 신앙 선조들의 서적을 읽었는데 가령 1726년 읽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와 그로부터 1-2년 후 접하게 된 윌리엄 로우의 「그리스도의 완전」(A Serious Call to a Derout and Holy Life. A practical Treatise on Christian Perfection) 그리고 제레미 테일러(Jeremy Taylor)의 「거룩한 삶 원리와 실천」(The Rule and Exercises of Holy Life)을 통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170) 조종남, 김흥기, 임승안 외, 『웨슬리 설교전집 5』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327.

171) 이후정, 『존 웨슬리의 역사 신학적 조명』 (서울: 감리교신학대학 출판부, 1995), 136.

172) 조경철, “존 웨슬리의 성서 이해와 감리교적 성서해석의 정신,” 『신학과 세계』 49(2004), 39.

173) W. Stephen Gunter, ed., *Wesley and The Quadrilateral: Renewing the Conversation*,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7), 77-79.

174) Ibid., 39.

정재용은 설교자를 “말씀에 복종하는 통로일 뿐이며 회중은 수동적 수용자” 로만 보던 개혁신교회의 전통은 설교가 행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나님의 체험을 설명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¹⁷⁵⁾ 웨슬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했다는 표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적인 증거를 주신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의 설교에는 말씀을 ‘체험’ 하는 것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다뤄진다. 웨슬리의 설교 ‘시대의 표적’ 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기독교는 오늘날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전파되고 있어서 눈에 이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심령으로 체험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만족하는 동일한 종교가 사람들의 심령에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가를 쉽게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영역에서 강하고도 부드럽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동일한 은총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습니다.”¹⁷⁶⁾ 그의 유명한 설교 ‘믿음에 대하여 I’ 에서 또한 이렇게 설교한다. “마지막으로, 당신들 안에서 당신들의 영과 더불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을 이미 체험하신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모든 선한 일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을 위하여 너희들이 지음 받은 그 선한 일들을 행하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따르십시오.”¹⁷⁷⁾

웨슬리가 이렇게 체험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은 그 역시 체험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알 듯이 그의 대표적인 체험이 바로 1783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에서 경험한 체험이자 회심사건이다. 이 사건은 그의 전 인생을 관통하는 맥이 되었고, ‘영혼 구원의 정신’ 을 세워준 결정적 체험이었다.¹⁷⁸⁾ 웨슬리에게 있어서 로마서 말씀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고, 나아가 수도 없이 자신의 입으로 설교한 말씀이었지만, 능력이 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이성 안에만 머물고, 체험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이제 삶으로 실천해 내는 데에 이르게 하는 가장 완전한 통로가 되었고, 똑같은 설교를 한 것 같지만, 체험을 거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이후에 나타난 열매들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게 하였다. 심지어 본인도 처음에는 뜻하지 않았던 야외설교(field preaching)를 했을 때, 여러 면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무리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급속한 부흥이 시작된 것은, 장소가 야외여서가 아니라, 그가 체험이 있는 설교자가 되었기 때문이다.¹⁷⁹⁾ 설교자의 체험은 그 설교를 듣는 회중들의 체험을 끌어내는 데에 가장 효과적이었고, 웨슬리가 더 이상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자에서 멈추지 않고, 회중들의 리더로 발돋움하게 하는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IV. 말

코로나19 팬데믹은 이제 더 이상 잠시 왔다 금방 지나가는 잊혀질 손님이 아닌 것을 세계가 점점 받아들이고 있다. 대부분의 교회들도 이제 변화된 새로운 세상, 즉 ‘뉴

175) 정재용, “설교에서 하나님 현존의 체화된 경험.” 「신학과 실천」 73(2021), 150.

176) 조종남, 김흥기, 임승안 외, 『웨슬리 설교전집 7』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97.

177) Ibid., 184.

178) 정인교, “위대한 설교자 존 웨슬리.” 「홍성철 교수 정년기념 회고 논문집」, 홍성철 편집 (서울: 도서출판 세복, 2006), 398.

179) Richard P. Heitzenrater, *Wesley and the People Called Methodists*, (Nashville: Abingdon Press, 1995), 97-99.

노멀(New Normal)’에 어떻게 적응하고, 나아가 리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고민들을 거쳤고,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해보았다. 그러한 가운데 가장 실효성이 있었던 인터넷을 활용한 설교와 교육은, 개별적인 공간에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었다는 강력한 강점이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는 자신의 교회의 회중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설교를 보고 듣는 현실에서, 갈수록 설교자들이 자신이 담당하는 특정교회의 회중들의 문제와 아픔과 질문보다 불특정 대중들을 향한 설교자로 점점 변모하고 있는 것은 개교회들의 위축과 회중들의 이탈을 더욱 가속하게 되는 무서운 단점이 되고 있다. 이것이 지속될 경우 교회의 뉴노멀은 웨슬리 시대에 영국국교회가 가지고 있던 탈회중적인 설교와 회중의 삶과 분리된 목회자들이 빚어낸 무능력한 설교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설교와 목회로 돌아가야 하고, 웨슬리적인 설교와 목회로 돌아가야 한다. 예수님과 웨슬리처럼 우리는 회중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그들의 고통과 문제위에 함께 서고, 그 안에서 구원을 이야기해야만 한다. 고통스럽더라도 회중들과 함께 말씀을 변증해야 하며, 오래 걸리더라도 그들을 설득해내는 긴 여정을 포기하면 안 된다. 할 수만 있다면 맥클루어가 제시한 것처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한 회중들과의 모임을 만들어, 보다 구체적인 회중들의 삶을 설교 안으로 녹여내고, 그들의 통찰력의 도움을 얻는다면, 설교자는 보다 효과적이고 깊이 있는 설교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¹⁸⁰⁾ 나아가 웨슬리안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통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주는 사명을 붙들어야 하며, 짧은 한 문장의 말씀이라도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체험을 통해 이해하도록 인도하여야 한다. 나아가 스스로를 웨슬리안이라 부르기를 원하고, 웨슬리가 경험한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최소한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앞서 본문에서 언급한 웨슬리의 설교문 작성의 원리들을 최대한으로 연습하고, 익히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웨슬리의 부흥은 능력있는 콘텐츠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콘텐츠를 회중에게 효과적으로 PR할 수 있게 한 매우 전문적이고 감각적인 수사학적 서포트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의 처음과 끝에는 우리는 무식하리만치 성경을 놓아서는 안 되며, 해석과 적용을 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도 절대로 성경책이 덮이게 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웨슬리안들로 불리는 메소디스트들이라면 코로나19 팬데믹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반드시 웨슬리안적인 정신을 넘어 구체적인 전통과 핵심적인 방법들만큼은 지켜내고, 그 위에서 발전시키어, 웨슬리가 경험하고 기록한 그 내적이고도 외적인 부흥을 다시 한 번 경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 김운용. “증언의 관점에서 본 설교에 대한 신학적 이해: 토마스 룡의 설교 신학적 이해를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73(2021), 93-122.
- 나광현. “포스트모던 상황에서의 설교를 위한 대화적, 협력적 소통을 통한 메시지 창안 (invention)이론에 대한 연구.” 「제51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

180) John S. McClure, *The Roundtable Pulpit: Where Leadership and Preaching Meet*, (Nashville: Abingdon Press, 1995), 7.

- 집」(2014), 229-250.
- 남모세. “존 웨슬리의 설교와 현대적 적용에 대한 연구.” 서울신학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 박문석. “강해적 내러티브 설교에 대한 실천적 방향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72(2020), 143-164.
- 변영서. “십자가의 전략.” 「신학과 세계」 20(1935), 10-19.
- 알버트 아우틀러/조종남 역. 『웨슬리 설교해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오현철. “뉴노멀 시대 설교의 변화.” 「복음과 실천신학」 119(2020), 117-44.
- 이후정. 『존 웨슬리의 역사 신학적 조명』. 서울: 감리교신학대학 출판부, 1995.
- 정인교. “위대한 설교자 존 웨슬리.” 「홍성철 교수 정년기념 회고 논문집」, 홍성철 편집 서울: 도서출판 세북, 2006. 398.
- 정재용. “설교에서 하나님 현존의 체화된 경험.” 「신학과 실천」 73(2021), 147-177.
- 조경철. “존 웨슬리의 성서 이해와 감리교적 성서해석의 정신.” 「신학과 세계」 49(2004), 25-51.
- 조종남, 김홍기, 임승안 외. 『웨슬리 설교전집 2』.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_____. 『웨슬리 설교전집 5』.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_____. 『웨슬리 설교전집 7』.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최영현. “다문화 상황에서 이머징(교회운동) 설교의 가능성과 신학적 의미.” 「제51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집」(2014), 367-394.
- 케네스 콜린스/이세형 역. 『존 웨슬리 톨아보기』. 서울: 신앙과 지성사, 2003.
- 토마스 롱/ 정장복, 김운용 역. 『증언으로서의 설교』. 서울: 쿠퍼출판사, 1998.
- Albert C. Outler, ed. *The Works of John Wesley, Bicentennial ed. vol. 1-4, Sermons*.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84-1987.
- Boraine, Alexander L. "The Nature of Evangelism in the Theology and Practice of John Wesley." Ph. D. diss., Drew University, 1969
- D. M. Lloyd-Jones. *Romans: An Exposition of Chapter 3:20-4:25, Atonement & Justification*. Grand Rapids: Ministry Resources Library, 1970.
- John S. McClure. *The Roundtable Pulpit: Where Leadership and Preaching Meet*. Nashville: Abingdon Press, 1995.
- John Telford. *Wesley's Veterans: Lives of Early Methodist Preachers Told by Themselves, vol 7*. Salem, Ohio: Schmul Publishers, nd.
- John Wesley. *The Works of John Wesley, vol.1*. Nashville: Abingdon Press, 1984.
- John Wesley. *The New Testament With Explanatory Notes*. London: Nicholson, n.d.
- John Wesley. *The Journal of the Rev. John Wesley, A. M. Edited by Nehemiah Curnock, 8vols*. London: Epworth Press, 1938.
- John Wesley. *Wesley's Standard Sermons, ed. and annotated by Edwin H. Sugden, 3rd. ed., 2vols*. Nashville: Lamer and Varten, n.d.
- Thomas G. Long. *The Sense of Preaching*. Atlanta: John Knox Press, 1988.
- The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Presbyterian Church (U.S.A.), “The Second Helvetic Confession,” in *The Book of Confession, pt. 1,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Louisville: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Presbyterian Church USA, 2002.

Richard P. Heitzenrater. *Wesley and the People Called Methodists*. Nashville: Abingdon Press, 1995.

Rupert E. Davies. *The Works of John Wesley, Bicentennial ed., vol. 9, The Methodist Societies: History, Nature and Design*. Nashville, TN: Abingdon, 1989.

W. Reginald Ward and Richard P. Heitzenrater, eds. *The Works of John Wesley, Bicentennial, vol. 19, Journals and Diaries IV*.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2.

W. Stephen Gunter, ed. *Wesley and The Quadrilateral: Renewing the Conversation*.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7.

Abstract ■

A study on Preaching of Wesleyan in the view of homiletics

Mo Se Nam

Covid-19 became rather the foundation and basic situation to live with than a disease which is going to be gone away a little later. It changed not only every pattern at the work places and schools but every pattern at the church managing, preaching, the structures and tools of evangelizing people as well. Many new ways and plans applied to cope with these radical changes which are made without enough preparing studies and trials caused so many mistakes and problems in every field. This study focuses on the phenomenon that the more preachers are getting more concerned with the other congregations or non-christians who show their likes or criticism to their preachings posted on websites than the local congregations delegated to the preachers. In this way, these kinds of the preachers are getting lost of the given-standard for preachings. For this situation, this study would look into the coping plan which the right view and direction of Wesleyan for the people who want to be called as the Methodists want to say as the answer. As we look into Wesley with his sermons and journals, I see Wesley as the preacher of a congregation-centered and a deductive topical preacher. Wesley tends to find the topic for the sermon from the life of the congregation and the structure of his sermon is very highly analytic and logical. When he tries to draw an understanding for the

essence of the topic and gives a conclusion, he always has used the Bible verses in a view of soteriology. At the part the conclusions, he usually put the actual spiritual experiences and the pastoral concerns with how to apply this sermons to the life of congregations. Thomas Long has mentioned some metaphors to talk about the theological meaning on practical preaching. In modern age, the metaphor of 'storyteller' has been accepted as an much effective way. However, I would assert that the people, especially the methodists, has to find the image of 'pastor metaphor' back or at least they have to replenish with it. This will give restoration of the pure wild nature of the methodist and will be the way to experience the inner recovery and outer revival back which Wesley has experienced.

Key words

Covid-19, New Normal Era, Wesleyan, Inductive topical Preaching, Congregation-centered preaching

고난 설교를 위한 설교학적 제안: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를 중심으로

서지마 박사(University of Pretoria/ 실천신학/ 설교학)

I. 들어가는 말

인간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유형의 고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며, 그리스도인 역시 고난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고난¹⁸¹⁾이다. 청중은 고난 설교를 통해 자신들이 겪는 고난의 의미와 그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한다.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 청중에게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Biblical answer to suffering)을 제공해야 한다. 고난은 설교 사역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보편적인 설교 주제 중의 하나이며, 반드시 설교자가 다루어야 할 주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 설교의 중요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고난 설교를 위한 설교학적 연구가 부족하다. 고난에 관한 다양한 성경 신학적 연구와 달리 고난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에 관한 설교학적 연구는 찾아보기가 힘들다.¹⁸²⁾

설교의 가장 핵심적이며 중요한 두 가지 과제가 해석과 전달이다.¹⁸³⁾ 설교는 주어진 본문을 상대로 의미 파악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해석학적 행위(hermeneutic action)이며, 또한 청중을 상대로 의미의 소통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커뮤니케이션 행위(communicative action)이다. 고난 설교에서도 해석과 전달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첫째, 설교자가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고난 설교가 그 메시지의 정당성(validity)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교자가 본문의 특정한 요소에 집중하여 본문을 원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그 설교는 고난에 관한 본문의 메시지를 왜곡하고 단순히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방법만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설교자가 해석을 통해 얻은 내용을 얼마나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고난 설교는 적실성(relevancy)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효과적인 전달 전략을 고려하지 않고 고난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나 피상적인 의미만 전달하는 설교는 고난에 대한 진술이나 해설로 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난 설교를 위한 설교학적 대안으로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를 제안하고자 한다. 앞에서 연구자가 논의한 해석과 전달이라는 설교학의 중요한 두 과제에서 볼 때, 구속사 내러티브는 메시지의 정당성과 적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다.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는 성경의 통일성과 유기성,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 관점(God-centered perspective)을 강조하는 구속사적 설교의 해석과 연속성(continuity)과 움직임(movement)을 강조하는 내러티브 설교의 플롯을 접목한 설교학적 전략이다.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진행될 것이다. 첫째, 한국 교회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난 설교의 문제점을 다룰 것이다. 특별히 연구자는 한국 교회의 고난 설교를 분석하기 위해서 하이델베르크 설교 분석 방법(Heidelberg method for sermon analysis)을 채택하였다. 설교 분석은 그 범위가

181) 고난(suffering)이라는 용어는 질병이나 고통과 같은 객관적인 측면에서 사용되거나, 반대로 괴로움이나 슬픔과 같은 주관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의학에서는 고통이라는 용어를 선호하지만, 신학에서는 고난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그러나 고통과 고난은 완벽하게 분리할 수 없으며, 고통과 고난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고통과 고난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서 고난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182) Seo Jima & Johann-Albrecht Meylahn, “Redemptive-Historical Narrative Preaching As a Homiletical Alternative for Preaching on Suffering,” *Hts Theologische Studien* 77 (2021), 1.

183) Haddon W. Robinson, “Homiletics and hermeneutics,” in *Making a Difference in Preaching*, eds. Scott Gibson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1999), 69-84.

한국 교회와 설교자들에게 국한될 것이며, 해석과 전달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고난 설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논의할 것이다. 둘째,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의 기초 이론을 구성하는 구속사적 설교와 내러티브 설교에 대해서 살펴보고 평가할 것이다. 구속사적 설교와 관련해서는 Sidney Greidanus를 중심으로, 내러티브 설교와 관련해서는 Eugene Lowry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셋째, 고난 설교를 위한 설교학적 대안으로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를 제안하고 그것을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의 필요성과 장점을 논의할 것이며,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의 플롯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단계들을 제안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속사적 내러티브에 관해 평가하고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한국 교회의 고난 설교 분석과 문제점들

본 연구는 한국 교회의 고난 설교 분석을 위해 Rudolf Bohren과 Gerd Debus가 제안하고 발전시킨 하이델베르크 설교 분석 방법을 채택하였다. 고난 설교 분석의 대상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의 목사 5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¹⁸⁴⁾ 다양한 설교 분석 방법이 있지만, 연구자가 하이델베르크 설교 분석 방법을 채택한 이유는 그것이 설교자의 설교학적 관점과 신학적 관점을 보여주는 탁월한 설교 분석 방법이기 때문이다.¹⁸⁵⁾ 하이델베르크 설교 분석 방법은 기본적으로 설교학적 질문과 언어학적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자는 설교학적 질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언어학적 질문들을 통해 설교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설교학적 질문들과 언어학적 질문들을 통한 설교 분석은 설교자가 성경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충실하게 잘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신학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본 연구는 설교 분석을 위해 기존의 하이델베르크 방법론의 질문들을 수정하여 사용할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설교 분석 방법의 질문들은 정확한 분석을 위해 질문을 수정하거나 생략할 수 있으며, 분석에 필요한 경우 몇 가지 질문을 첨가할 수도 있다.¹⁸⁶⁾ 효율적인 고난 설교의 분석을 위해 연구자는 몇 가지 질문들을 생략하고, 고난과 관련된 질문을 첨가하였다.¹⁸⁷⁾ 설교 분석을 통해 연구자는 해석과 전달이라는 관점에서 한국 교회에서 실행되는 고난 설교의 두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발견하였다.

1) 자의적 해석(eisegesis)

자의적 해석이란 설교자가 자신의 독특한 전제나 선이해 혹은 편견에 따라 본문을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⁸⁸⁾ 즉,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본문에서 꺼내는 것(out of)이 아니라, 본문에 자신이 원하는 의미를 강제로 주입(into)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의적 해석에 근거한 고난 설교는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고난의 신학적 의미 혹은 고난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를 청중에게 바르게

184) 설교 분석을 위해 선정한 교단과 설교자에 대한 근거는 다음을 참고하라. Seo Jima & Johann-Albrecht Meylahn, "Redemptive-Historical Narrative Preaching As a Homiletical Alternative for Preaching on Suffering," 19-21.

185) Johan H. Cilliers, *God for us: An analysis and assessment of Dutch reformed preaching during the apartheid years* (Stellenbosch: Sun Press, 2006), 8-11.

186) 박성환, "이상근 목사의 설교 분석: 사도신경의 연속 설교를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회, 「한국개혁신학」 36 (2012): 142-43.

187) 수정된 질문은 다음을 참고하라. Seo Jima & Johann-Albrecht Meylahn, "Redemptive-Historical Narrative Preaching As a Homiletical Alternative for Preaching on Suffering," 2.

188) Noah Webster, *Webster's New Collegiate Dictionary* (Springfield, MA: G. & C. Merriam Company, 1976), 364.

전해줄 수 없다.

설교자들이 자주 범하는 대표적인 자의적 해석의 유형으로는 원자적 해석(atomistic interpretation)과 신학적 선이해(theological preunderstanding)에 근거한 해석이 있다. 원자적 해석이란 설교자들이 본문에 나타난 특정한 요소를 중심으로 본문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이다.¹⁸⁹⁾ 예를 들어, O 목사는 본문에 단순히 기쁨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쁨을 강조한다. 이처럼, 원자적 해석은 인간의 특정한 행위나 혹은 본문에 등장하는 특정한 요소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모범적 설교(exemplaristic preaching)로 나아갈 위험이 있다. 신학적 선이해에 근거한 해석은 해석자가 본문으로부터 메시지를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호하는 신학적 선이해에 근거하여 본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Y 목사는 고난을 죄와 징벌이라는 인과율적 관점에서만 해석한다. 그러한 해석으로 설교의 메시지가 회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처럼 신학적 선이해에 근거한 해석은 고난의 의미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킬 뿐만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의 노력만을 강조하는 인간중심적인 설교(anthropocentric Preaching)로 나아갈 위험이 있다.

2) 고난 설교를 위한 효과적인 설교 형식의 부재

연역적 형식(deductive form)의 방식은 설교의 주제나 중심 사상을 먼저 밝히고(to be explained), 그것을 증명한 후, 적용하는 것이다.¹⁹⁰⁾ 연역적 형식의 목표는 청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연역적 형식은 교훈적(didactic) 중심의 설교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대중적인 연역적 형식이 포인트 형식(points-making form)이다. 포인트 형식이란 설교의 중심 사상 혹은 설교의 주제를 결정하고 그것을 몇 개의 필수적인 항목으로 세분한 다음, 그 항목들을 설교의 구성 대지로 배열하는 형식이다.¹⁹¹⁾

설교 분석을 통해 연구자는 한국 교회의 고난 설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설교 형식이 연역적 형식(deductive form)임을 발견하였다. 연역적 형식의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고난 설교에서 연역적 형식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중들이 설교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연역적 형식이 주된 관심이 정보 전달에 있기 때문이다. 고난에 대한 신학적 의미나 성경적 가르침에 대한 일방적인 주입식 전달은 설교를 일종의 강의같이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설교에서 청중은 그저 고난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듣는 수신자에 불과하다. 둘째, 청중의 긴장감이나 호기심을 유발하기가 어렵다. 연역적 형식의 설교는 한 편의 설교라기보다는 여러 개의 작은 설교들로 구성된 개요 중심의 설교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다른 아이디어를 가진 대지로 구별되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설교의 메시지가 불연속적이다. Lowry의 지적과 같이, 연역적 형식은 발전(development)이 아닌 건축(construction)의 방식이기 때문에, 유기적인 전체로 작동하지 않고 그저 다양한 정보의 결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¹⁹²⁾ 결국 연속성(continuity)과 흐름(movement)이 간과된 연역적 형식의 고난 설교는 청중의 긴장감이나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셋째, 해석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설교자가 삼대지 형식(three-point form)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대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본문의 내용에서 벗어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본문은 설교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보조 도구나 증거 구절로 전락할 수 있다.¹⁹³⁾

189) Sidney Greidanus, *Sola Scriptura: Problems and Principles in Preaching Historical Texts* (Eugene, OR: Wipf & Stock, 2001), 63-64.

190) Haddon W. Robinson, *Biblical Preaching: The Development and Delivery of Expository Messages*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14), 78-85.

191) Robinson, *Biblical Preaching*, 78-79

192) Eugene L. Lowry, *The Homiletical Plot: The Sermon as Narrative Art Form*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8-9.

193) 정창균, “효과적인 설교 전달과 설교 형식의 다양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출판부, 「신학정론」 27

2. 구속사 설교와 내러티브 설교에 관한 연구

고난 설교를 위한 설교학적 대안으로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를 제안하기에 앞서,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의 이론이 되는 구속사적 설교와 내러티브 설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구속사적 설교와 내러티브 설교는 전통적인 설교학과 신설교학을 대표하며, 각각 해석과 전달에 유익한 설교학적 통찰력과 전략을 제공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구속사적 설교와 내러티브 설교가 가진 한계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1) 구속사적 해석과 구속사적 설교

성경은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기록하고 있으며, 구속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¹⁹⁴⁾ 그런 의미에서 Geerhardus Vos는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속을 청중에게 밝히는 것이 성경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⁹⁵⁾ 이러한 Vos의 주장은 설교에도 적용할 수 있다. 본문 해석은 단순히 성경해석 방법론을 몇 가지 숙지함으로 해결될 수 없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설교자에게 구속사적 관점의 해석이 필요하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신학적 주제와 이 신학적 주제를 담고 있는 역사적 사건, 그리고 그 역사적 사건 속에 담긴 신학을 전달하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문학 형식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함께 얽혀져 있다. 따라서 설교자는 본문 해석을 위해 역사, 문학, 그리고 신학의 세 가지 차원을 늘 함께 고려해야 하며, 구속사적 해석을 위해 세 가지 해석이 요구된다. 첫째, 역사적-문법적 해석(grammatical-historical interpretation)은 단어들과 표현들, 장르 등과 같은 문법적인 사항들을 연구하고, 그 본문이 기록된 역사적 상황들을 연구하는 것이다.¹⁹⁶⁾ 둘째, 유기적 해석(organic interpretation)은 한 마디로 성경의 어떤 한 본문을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흐름 속에 있는 사건으로 보고 성경 전체와의 관련 아래서 해석하는 것이다.¹⁹⁷⁾ 셋째, 종합적 해석(synthetic interpretation)은 해석자가 본문(사건)을 그 본문의 고유성 안에서 보는 것이다. 즉, 종합적 해석은 본문에 담겨 있는 요소들의 특별한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는 해석이다.¹⁹⁸⁾

구속사적 해석이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구속사를 목격하는 것이면, 구속사적 설교란 설교자가 구속사적 해석을 통해 얻은 구속사적 메시지를 청중에게 설교하는 것이다. 설교자는 구속사적 해석을 통해 성경 본문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그 구속 사역이 주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지금 그리고 여기”(now and here)의 신자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도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선포한다. 그런 점에서 구속사적 설교는 단순히 본문에 나타난 구속사 혹은 구속 사역을 설명(explain)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교를 통해 증명(prove)하고 선포(proclaim)는 설교 사역이다. 즉, 구속사적 설교의 목표는 성경이 제시하는 과거의 구속사가 말씀 사역을 통해 현재화(actualize)되도록 하는 것이다.¹⁹⁹⁾

구속사적 설교의 설교학적 공헌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속사적 설교는 계시 자체의 성경 신학적 특징을 명확히 보여준다. 구속사적 설교는 성경의 단일성과 통일성,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시

(2009): 310.

194) John R. W. Stott, *I Believe in Preaching*, 원광연 역, 『설교론』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5), 97.

195) Geerhardus Johannes Vos, *Biblical theology: Old and New Testaments* (Eugene, OR: Wipf & Stock, 2003), 5-6.

196) Bryan Chapell, *Christ-centred preaching: Redeeming the expository sermon*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5), 77.

197) Sidney Greidanus, *Sola Scriptura*, 135-36.

198) Sidney Greidanus, *Sola Scriptura*, 137.

199) 이승진, “구속사 관점에 근거한 설교 목회”,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출판부, 『신학정론』 31 (2013): 132.

사역의 유기적 연속성에 근거를 둔다. 둘째, 구속사적 설교는 신자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엔 적합한 설교이다. 구속사 설교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명확하게 잘 보여줄 수 있는 설교이다.

그러나 구속사적 설교는 아래의 한계들을 안고 있다. 첫째, 설교자가 선불리 구속사적 관점을 본문으로 끌고 올 때, 그 본문 자체의 문법적-역사적 의미를 간과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설교자가 역사적-문법적 해석을 무시하고, 해석의 첫 단계부터 무리한 유기적 해석을 시도할 경우, 본문이 가지는 그때 그리고 거기(then and there)의 고유한 메시지가 간과될 수 있다. 둘째, 설교자가 구속사적 의미에 지나치게 집중하다가 설교의 적용을 약화할 수 있다. Greidanus는 기존의 구속사적 설교론자들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대변한다. “설교자의 임무는 말씀에다 적용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오늘날 그 모든 적실성-하나님 중심적인 설명에 이미 포함된 적실성-에 맞게 선포하는 것이다.”²⁰⁰⁾ 이러한 구속사적 설교를 주장하는 이들은 구속사적 성경해석을 곧 구속사적 설교라고 간주한다. 이런 경우, 구속사적 설교는 적용이 사라진 구속사적 의미(redemptive-historical meaning)만 전하는 하나의 강의를 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설교자가 그리스도 중심적 원리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구속사적 설교가 “그리스도 일원론”(Christomonism)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그리스도 일원론이란 성경의 모든 본문에서 예수님을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속사적 설교가 주장하는 그리스도 중심성이란 삼위일체 구속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이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성자 하나님만을 강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²⁰¹⁾ 설교 때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을 구속사적 설교의 방법론적 원리로 생각하여 모든 본문에서 예수님을 언급하는 것은 본문과 예수님을 무리하게 연결하는 풍유적 해석을 초래할 수 있다.

2) 내러티브와 내러티브 설교

“내러티브”(narrative)라는 용어는 기독교 교육, 기독교 윤리 등 기독교 신학의 다양한 분야와 나아가 문학과 인문 사회 과학 분야 그리고 심지어 일반 경영학에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우선, 내러티브를 문학적 장르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lasdair MacIntyre(1981), Paul Ricoeur(1984), 그리고 Ruf(1994)와 같은 학자들은 내러티브를 문학의 장르로 간주한다.²⁰²⁾ 그러나 내러티브가 가진 형식적 차원에서 더 나아가 내러티브의 내용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다. Roland Barthes는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언어, 이미지, 제스처, 그러한 요소들의 혼합에 의해 전달되는 문화와 국적을 초월한 인간 공통의 경험을 내러티브라고 정의한다.²⁰³⁾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Paul Nelson은 내러티브를 인간의 실존과 실재의 세계를 기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Barthes와 Nelson 모두 동시에 내러티브의 형식적인 문학적 차원도 고려한다. 그들 역시 내러티브가 등장인물, 사건, 행동, 주제, 플롯을 가지고 일관되게 기술되는 문학적 장르로 내러티브를 인식하고 있다.²⁰⁴⁾ 이처럼 내러티브는 ‘경험이 일어나는 배경’, ‘이야기의 주인공’,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드러내는 플롯’ 등이라는 문학적 구성요소를 갖고 있으며, 단순히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화자가 특정한 흐름의 스토리를 통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내러티브에 대해서 “플롯을 중심으로 시작, 전개, 결말이라는 일정한 구성형식을 갖춘 저자의 의도가 포함된

200) Sidney Greidanus, *Sola Scriptura*, 160.

201) Sidney Greidanus, *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Interpreting and Preaching Biblical Literature*, (Grand Rapids, MI: W. B. Eerdmans Pub, 1988),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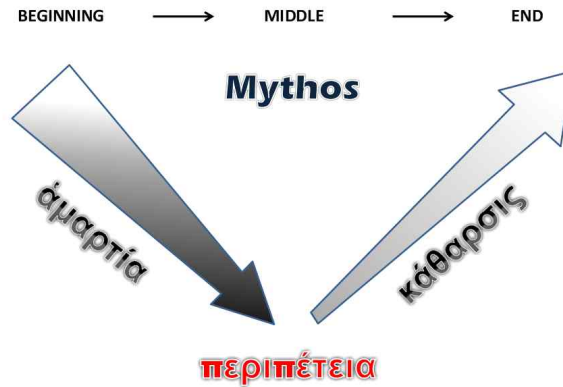
202) A. C. MacIntyre,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1); Paul Ricoeur, *Time and Narrative*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F. J. Ruf, “The Consequences of Genre: Narrative, Lyric, and Dramatic Intelligibilit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62 (1994).

203) Roland Barthes & Stephen Heath, *Image, Music, Text* (Londo: Fontana Press, 1977), 79.

204) Paul Nelson, *Narrative and Morality: A Theological Inquiry*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87), 49-63.

이야기”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내러티브의 핵심은 이야기가 저자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플롯이라고 하는 조직화한 형식을 꾸며내는가에 있다.²⁰⁵⁾ 플롯은 고대 수사학에서부터 사용된 문학적 기술(literary artifice)로서, 간단하게 말해서 이야기의 움직임 보여주는 구조를 의미한다. Aristoteles는 시학(Poetics)에서 플롯(plot/mythos)을 사건들의 배열이라고 정의한다.²⁰⁶⁾ Aristoteles는 플롯이 비극(tragedy)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Aristoteles가 제시한 비극의 구조는 <그림 1>와 같이 시작, 중간, 끝의 플롯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Aristoteles는 플롯이 “실수나 결함”(ἀμαρτία)로 시작하여 “반전”(περιπέτεια)를 거쳐 “정화”(κάθαρσις)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림 1>

설교에서 내러티브는 매우 효과적이다. 그 이유는 설교자가 중심 사상을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청중이 중심 사상에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²⁰⁷⁾ Mathewson은 설교에서 플롯이 설교가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략적으로 지연시키면서 계속 긴장을 유지하는 장치로 작용한다고 말한다.²⁰⁸⁾ 내러티브의 중요성은 신설교학의 대표적인 학자인 Eugene Lowry의 내러티브 설교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제시되었다. 내러티브 설교란 플롯 형태(form of a plot)로 구성된 설교를 말한다. Lowry는 전통적인 설교가 설교를 형성하는 전환 또는 움직임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긴장과 호기심을 유발시키기 위한 설교학적 장치가 바로 설교학적 플롯(homiletical plot)이다. Lowry는 내러티브 설교의 플롯을 아래와 같이 다섯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²⁰⁹⁾ 첫 번째 단계는 모순되는 갈등이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서론에서 제시된 문제나 갈등이 왜 일어났는지 그 모순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Lowry는 “역전의 원리”(principle of reversal)를 강조한다. 역전이란 우리가 예상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에서 시작된다. 네 번째 단계는 복음을 경험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청중들은 인간의 실천적 사고방식(human fulfillment mentality)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경험한다. 다섯 번째 단계는 결과를 기대하는 단계이다. 전통적인 설교는 마지막 단계에서 결론을 제시하거나 청중의 삶에 메시지를 적용한다. 그러나 Lowry는 마지막 단계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또 다른 가능성을 향하여 열어놓는 형식으로 설교를 맺는다. Lowry는 모든 설교가 자신이 제시하는 다섯 단계의 설교학적 플롯을 따를 것을 주장한다.²¹⁰⁾ Lowry에게 청중의 체험이 설교의 목적

205) M. H. Abrams, *A Glossary of Literary Terms*, 최상규 역, 『문학용어사전』 (서울: 예림기획, 1997), 97.

206) Aristoteles, *De arte Poetica*, 나종일 역, 『정치학/시학』 (서울: 삼성 출판사, 1999), 133-134.

207) Robinson, *Biblical Preaching*, 90.

208) Steven D. Mathewson, *The Art of Preaching Old Testament Narrative*, 이승진 역, 『청중을 사로잡는 구약의 내러티브 설교』 (서울: CLC, 2004), 200-01.

209) Lowry, *The Homiletical Plot*, 31-79.

이러면, 플롯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중요 장치로서 작용한다.

내러티브 설교의 설교학적 공헌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교 형식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Lowry는 신설교학자로서 설교의 내용이 형식에 의해서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Lowry는 지속적인 작업을 통해 설교학적 플롯을 수정하며 더욱 발전된 내러티브 설교의 이론들과 실제들을 제시하였다.²¹¹⁾ Lowry는 설교에서 형식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학적 장치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으며, 내러티브뿐만 아니라 다양한 설교 형식들 역시 설교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청중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이해를 제공했다. 기존의 전통적 설교에서 청중이 본문을 일방적으로 듣는 수동적 위치에 있었다면, 내러티브 설교에서는 청중이 설교자와 함께 여정(homiletical journey)을 떠나는 참여자가 된다. 셋째, 복음 전달을 위한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Ronald J. Allen은 내러티브 설교가 청중들에게 그들의 삶을 다시 생각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더욱 진실한 복음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한다.²¹²⁾ 갈등이나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반전을 통해 해결을 향해 나아가는 플롯의 흐름은 청중에게 자신들이 경험하는 갈등이나 문제가 결국 복음 안에서 해결될 것을 보여줌으로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설교학적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내러티브 설교는 아래의 한계들을 안고 있다. 첫째, 저자의 의도가 왜곡될 수 있다. Thomas Long은 본문의 영향력이 본문의 명제, 즉 저자의 의도와 연결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내러티브 설교의 주장이 틀렸다고 결론짓는다.²¹³⁾ 열린 결론이나 청중 중심의 해석을 무조건 허용하는 것은 본문의 의도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위험하다. 둘째, 단순히 청중의 체험을 설교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설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Poythress(1999:52-57)가 제시한 목적의 삼각대에 비추어 볼 때 설교는 다음의 삼중 목적을 가진다.²¹⁴⁾ 설교는 청중에게 진리를 가르친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돕는다. 설교는 청중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킨다. 이러한 삼중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경험을 설교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것은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다. Long은 설교에서 청중의 경험만을 설교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설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한다.²¹⁵⁾ 셋째, 내러티브 설교가 제시하는 복음이 주관적인 복음으로 대체될 수 있다. Charles L. Campbell은 체험에 대한 강조가 결국 하나님을 즉각적인 인간의 체험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신학적 관계주의”(theological relationalism)로 복음을 전락시킨다고 지적한다. 그는 플롯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야말로 내러티브 설교에서 나타내야 할 복음이라고 주장한다. Campbell은 내러티브 설교가 단순히 플롯만 만드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성경의 이야기, 특히 성경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²¹⁶⁾

210) Lowry, *The Homiletical Plot*, 22-26.

211) Eugene L. Lowry, *Doing Time in the Pulpit: The Relationship between Narrative and Preaching*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85); Lowry, *How to Preach a Parable: Designs for Narrative sermons*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89); Lowry, *The Sermon: Dancing the Edge of Mystery*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7).

212) Ronald J. Allen, *Patterns of Preaching: A Sermon Sampler* (St. Louis, MO: Chalice Press, 1998), 94.

213) Thomas G. Long, *The Witness of Preaching*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6), 125.

214) Vern S. Poythress, *God-Centred Biblical Interpretation*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99), 52-57. Poythress는 *God-Centred Biblical Interpretation*에서 아래와 같이 성경의 삼중 목적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Poythress는 삼위일체의 위격들이 상호내재성을 가지는 것(Περίχωρησις)처럼 성경의 삼중 목적들 역시 상호 내재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Poythress의 주장에 근거해서 설교의 목적을 아래의 세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 세 가지 목적은 서로 상호 보완하며 공존한다.

215) Long, *The Witness of Preaching*, 48.

216) Charles L. Campbell, *Preaching Jesus: The New Directions for Homiletics in Hans Frei's Postliberal Theology* (Grand Rapids, MI: W.B. Eerdmans Pub, 1997), 142-57.

3.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

1)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redemptive-historical narrative preaching)의 정의

일반적으로 구속사적 내러티브(redemptive-history narrative)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루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내러티브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용어이다.²¹⁷⁾ 성경에 기록된 구속사 내러티브는 설교에서도 구현될 수 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관한 이야기가 특정한 플롯을 통해서 전달될 때, 그 설교는 고난 가운데 있는 청중에게 오늘날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난 설교를 위한 설교학적 대안으로서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를 제안하고자 한다.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란 성경 본문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하나님 중심의 중심 사상을 발견한 후, 그것을 특정한 플롯을 사용하여 전달하는 설교를 의미한다. 연구자는 해석과 전달이라는 두 가지 설교학적 과제에 구속사적 설교와 내러티브 설교가 가진 각각의 장점들을 접목하였다.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는 성경의 통일성과 유기성, 그리고 본문의 명제를 강조하는 구속사적 설교와 회중에게 말씀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흐름을 강조하는 내러티브 설교의 장점을 살리는 노력이다. 신학적 관점에서는 *Textus Rex*—“The Text is King”²¹⁸⁾, 즉 설교에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신학적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고, 해석학적 관점에서는 성경의 통일성과 유기성을 강조하는 구속사적 해석을 따르는 것이고, 설교학적 관점에서는 내러티브 설교의 플롯이라는 형식을 수정하여 사용한 설교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는 구속사라는 신학에 근거를 두면서도(theology-based), 한편으로 청중을 지향하는(audience-directed) 통합적 설교 방법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2)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의 필요성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 중심성(God-centredness)과 청중 중심성(Audience-centredness)의 통합을 위해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가 필요하다. Wilson은 본문을 읽고 해석할 때, 하나님 중심의 메시지(God Sense)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²¹⁹⁾ Wilson은 설교자의 본문 해석이 단순히 역사적 지식이나 종교적인 정보를 얻는 해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설교자가 본문에서 하나님에 관한 진술(God-statement)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²²⁰⁾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는 구속사적 해석을 통해 하나님에 관한 진술이 담긴 하나님 중심적 중심 사상(God-centered big idea)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나님 중심적 중심 사상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 그리고 여기의 신자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 중심 사상은 플롯이라는 전략을 통해 청중 중심성을 확보할 수 있다. 청중은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가 제시하는 플롯을 통해 먼저 자신들에게 처한 고난이라는 갈등을 발견한다. 그리고, 심화를 통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며, 삼위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반전을 통해 자신들의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발견한다. 더 나아가, 청중은 그 은혜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적용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 수 있다.

둘째, 본문 중심성(text-centricity)과 본문 적용성(text applicability)의 통합을 위해 구속사적

217) 이승진, “구속사 내러티브를 구현하는 설교목회에 관한 연구”,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43 (2017): 93-94.

218) David L. Akin, et al., *Text-driven Preaching: God's Word at the Heart of Every Sermon* (Nashville, TN: B & H Academic, 2010), 7.

219) Paul S. Wilson, *God-Sense: Reading the Bible for Preaching*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1).

220) Paul S. Wilson, *The Four Pages of the Sermon: A Guide to Biblical Preaching*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9), 39-44.

내러티브 설교가 필요하다. 본문 중심성이란 설교에서 선포하는 본문의 메시지가 성경 본문에 근거한다는 것이고, 본문 적용성이란 설교의 메시지가 청중에게 적용될 가능성을 가졌다는 것이다. Haddon W. Robinson은 현대의 설교가 생명력을 잃게 된 원인을 설교자가 본문의 내용이 아닌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유혹을 계속해서 받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²²¹⁾ 따라서 본문 중심성을 유지할 수 있는 특정한 신학적 해석이 요구되며, 본 연구는 그러한 해석으로 구속사적 해석을 제안한다. 구속사적 해석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를 묻기 때문에, 메시지의 신학적 근거를 본문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으며, 예증적 해석, 단편적 해석, 원자적 해석을 피하도록 도움을 준다. 구속사적 해석을 통해 확보된 본문 중심성은 자연스럽게 본문 적용으로 나아간다. 그 이유는 구속사가 객관적인 차원과 주관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²²²⁾ 성경의 완성으로 객관적인 구원에 관한 계시는 종료되었더라도, 설교를 통한 구속사의 주관적인 적용은 계시와 역사의 울타리를 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구속사의 객관적인 차원에 관한 계시를 담고 있는 본문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객관적인 해설에 머무를 수 없고, 청중에게 구원 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반응을 요구한다. 그러한 이유로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는 Lowry의 열린 결말을 거부하고, 은혜에 근거한 적용을 제시하는 것으로 플롯을 마무리한다.

3) 구속사적 내러티브의 준비 단계

설교 준비에는 본문 연구와 연구된 본문을 설교화하는 두 가지 과정이 있다.²²³⁾ 본 연구에서는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의 준비 단계를 두 가지 과정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 준비의 첫 번째 단계는 본문 연구이다. 이 과정에는 여기에는 본문 관찰, 본문 주해,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 중심 사상 도출이 포함된다. 본문 관찰은 본문을 읽고 파악하는 과정이다. 설교자는 본문 관찰에서 본문에 대한 주도면밀한 관찰을 통해 본문의 분위기와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한다. Bryan Chapell의 충고와 같이, 설교자는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본문을 신중히 그리고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²²⁴⁾ 본문 주해는 역사적, 문법적, 신학적 방법을 통해 본문의 의미들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주해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해석이 바로 문법적-역사적 해석이다. 우리는 원래의 성경 독자들과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언어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리고 시간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²²⁵⁾ 이러한 간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문법적-역사적 해석이 요구된다. 문법적-역사적 해석은 본문의 단어들과 표현들, 장르 등과 같은 문법적인 사항들, 그리고 그 본문이 기록된 역사적 상황들을 연구한다. 그러나 본문 주해가 문법적-역사적 해석에서 멈춘다면, 그것은 본문의 신학적 차원을 무시하는 것으로 불완전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 본문은 신학과 역사, 그리고 형식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문 해석을 위해 신학적 해석이 요구되며, 본 연구는 신학적 해석으로서 구속사적 해석을 제안한다. 구속사적 해석은 유기적 해석과 종합적 해석을 포함하는 해석이다. 유기적 해석은 성경의 통일성에 근거한 해석으로, 전체적 맥락에서 본문을 보는 것을 강조하며, 종합적 해석은 본문의 고유성을 밝히는 해석으로서 본문의 고유한 요소들을 강조한다. 본문의 하나님 중심적 중심 사상 도출은 하나님께서 중심인물(the main character)이 되는 본문의 중심 사상을 확보하는 작업이다. Greidanus와 Wilson은 공통으로 설교의 메시지가 인간중심적인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²²⁶⁾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의 중심 사상을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일

221) Robinson, *Biblical Preaching*, 3-4.

222) Geerhardus Johannes Vos, *Biblical theology*, 6.

223) Fred B. Craddock, *Preaching* (Nashville, TN: Nashville Press, 2010), 84.

224) Bryan Chapell, *Christ-centred preaching*, 107.

225) J. Scott Duvall & J. Daniel Hays, *Grasping God's word: A Hands-on Approach to Reading,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Bible*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5), 19-20.

226) Greidanus, *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113-14; Wilson, *The Four Pages of the Sermon*, 39-40.

하심을 밝히는 하나님 중심적 중심 사상이라는 용어로 제안한다. 청중은 하나님 중심적 중심 사상을 통해 그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난의 진정한 해결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 중심적 중심 사상은 Robinson의 중심 사상의 구성²²⁷⁾을 참고하여, 하나님 중심적 주제(God-centered subject)와 하나님 중심적 보어(God-centered complement)로 구성되었다. 하나님 중심적 주제는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며, 하나님 중심적 보어는 이 본문이 하나님 중심적 주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다.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 준비의 두 번째 단계는 플롯 배열이다. 이 단계는 본문 해석을 통해 얻은 하나님 중심적 중심 사상에 움직임과 연속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Hans Urs von Balthasar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학적 갈등에 대한 문제를 드라마 이론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²²⁸⁾ Balthasar는 신적 드라마의 3요소로서 저자인 하나님, 연출자인 성령, 그리고 배우인 인간을 소개하며, 드라마의 실현(realization)을 위한 요소로서 표현, 관객, 그리고 지평을 구분해서 논의한다.²²⁹⁾ Balthasar에게 영향을 받은 Kevin Vanhoozer도 자신만의 독특한 드라마 이론을 제안한다. 그러나 Vanhoozer는 세계보다는 텍스트인 성경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근거하여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을 설명한다. Vanhoozer의 드라마 이론은 창조, 이스라엘, 예수, 교회, 종말이라는 5막으로 구성된다. Vanhoozer는 드라마 이론에 근거하여 교리, 교회, 그리고 배우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전개한다.²³⁰⁾ Balthasar와 Vanhoozer가 주장하는 각각의 드라마 이론 사이에는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두 이론에 기본적인 공통점도 있다. 그것은 “구원론”(soteriology)이라는 기독교 신학의 중심 사상을 드라마라는 문학적 장치를 통해 담아내려 시도한 것이다. 즉, 구속사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속하기 위한 큰 경륜과 계획이 기록된 하나의 신적 드라마(Theo-drama)라고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신적 드라마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이 드라마가 대반전(The Great Reversal)의 내러티브라는 점이다.²³¹⁾ 신적 드라마는 “창조-타락-구원-재창조”라는 독특한 흐름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인류는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다. 인간은 하나님과 더욱 멀어졌고, 율법은 오히려 인간이 가진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impossibility)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이 단계를 앞에서 논의한 Aristoteles의 용어를 빌리자면, ἀμαρτία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인류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도록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대반전이였다. 이 단계를 앞에서 논의한 Aristoteles의 용어를 빌려 περιπέτεια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우주적 대반전으로 죄인들은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가능성(possibility)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때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실 것이다. 이 단계를 Aristoteles의 용어를 빌려 κάθαρσις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설교는 단순히 하나님의 신적 드라마에 대한 설명에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한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227) Robinson, *Biblical Preaching*, 16-26.

228) H. U. Von Balthasar, *Theo-Drama: Theological Dramatic Theory. Volume II: The Dramatis Personae: Man in God*, trans. G. Harrison (San Francisco, CA: Ignatius Press, 1990),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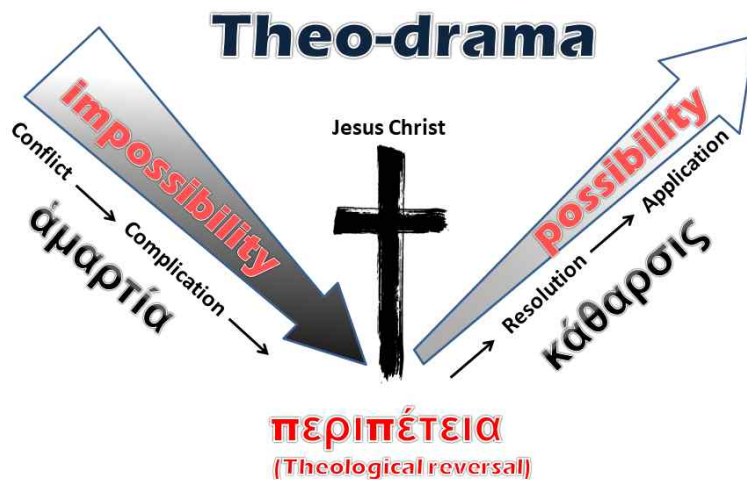
229) H. U. Von Balthasar, *Theo-Drama: Theological Dramatic Theory. Volume I: Prolegomena*, trans. G. Harrison (San Francisco, CA: Ignatius Press, 1988), 268-342.

230) Kevin J. Vanhoozer, *The Drama of Doctrine: A Canonical-Linguistic Approach to Christian Theology*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5), 12.

231) Allen Verhey, *The Great Reversal: Ethics and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 W. B. Eerdmans Pub, 1984), 94; Andrew Steinmann & Michael Eschelbach, *Called to be God's People: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Eugene, OR: Wipf & Stock, 2006), 95.

직설법(indicative)과 명령법(imperative)이라는 구조를 통해 단순히 하나님의 구원을 서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자들이 그 구원의 은혜에 근거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명령한다. 이러한 직설법과 명령법의 구조는 설교에도 적용할 수 있다. John Stott가 지적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참된 사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사역에 관해 철저히 사려 깊게 선포하고자 주의를 기울이며, 그런 뒤에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진지하고 치열하게 호소한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있어야만 한다”.²³²⁾ J. V. Fesko는 구원 역사에 근거한 이러한 설교의 직설법과 명령법의 구조를 가리켜 “구원의 어법”(the grammar of salvation)이라고 표현한다.²³³⁾ 설교자는 구원의 어법을 따라 청중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선포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근거한 적실성 있는 적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그림 2>와 같이, 고난 설교를 위한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의 플롯을 제안한다. 이 플롯은 Lowry의 설교학적 플롯을 신적 드라마에 비추어 제시한 것이며, 앞에서 논의한 구원의 어법에 근거하여 적용을 추가하였다.



<그림 2>

(1) 갈등(conflict)

설교의 도입부에서 갈등을 제시하는 이유는 그것이 청중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에서 주의할 점은 갈등이 본문의 하나님 중심적 중심 사상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Lowry의 내러티브 설교에서 제안하는 갈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Lowry의 내러티브 설교는 단순히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거나 자극하기

232) John R. W. Stott, *The Preacher's Portrait* (London: Tyndale Press, 1961), 51.

233) J. V. Fesko, "Preaching as a Means of Grace and the Doctrine of Sanctification: A Reformed Perspective," *American Theological Inquiry* 3 (2010, Jan): 49.

위해 갈등을 제기하는 것에 중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갈등을 성경 본문이 아닌 청중의 삶으로부터 도출할 경우, 인간의 상황이 설교의 중심 사상을 결정하게 되며, 본문의 의도를 왜곡할 수 있다.²³⁴⁾ 그런 점에서 플롯의 갈등은 성경 본문으로부터 찾는 것이 옳다. 성경의 모든 본문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류의 본성과 결과들을 보여주며,²³⁵⁾ 이러한 요소들을 참고해서 본문으로부터 갈등을 발견할 수 있다.

(2) 심화(Complication)

갈등을 통해 설교자가 청중의 참여를 끌어냈다면, 다음 단계는 그 갈등을 심화하는 단계이다. Lowry는 심화의 목적이 우리 인간이 처한 갈등이나 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복음에 기초한 치료책의 발견을 기대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²³⁶⁾ 그러나 본 연구는 고난이라는 독특한 주제와 관련하여, Lowry가 주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가 제안하는 심화의 목적을 인간에게 고난을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impossibility)을 보여주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갈등이나 문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심화할 수 있다. 첫째, 갈등을 오늘날 청중들과 연관된 예나 예화들을 사용하여 심화하는 것이다. 둘째, 갈등을 성경의 이야기나 예들을 사용하여 심화하는 것이다. 셋째, 앞에서 논의한 방법들을 혼합하여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각각의 예들을 적절히 잘 배치해야 한다.

(3) 신학적 역전(Theological reversal)

본문에 충실한 설교라면, 갈등과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하심을 보여주는 특별한 신학적 움직임(theological movement)이 있어야 한다.²³⁷⁾ 갈등과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이제 설교에서 필요한 것은 인간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에서는 역전이라는 용어 대신에 “신학적 역전”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Aristoteles의 시학이나 Lowry의 내러티브 설교에서 역전이 문학적 장치로서의 반전을 의미하였다면,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에서 말하는 신학적 역전이란 회복과 은혜로의 특별한 하나님의 행동과 관련된 역전을 의미한다. Paul Scott Wilson은 하나님의 행동을 거의 모든 성경 본문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²³⁸⁾ 설교자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찾아야 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자의 삶에서 본문과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선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Wilson은 설교자가 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거나 하나님의 활동들을 나열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²³⁹⁾ 신학적 반전은 현재형 시제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본문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이다.²⁴⁰⁾

(4) 해결(Resolution)

여기서 말하는 해결은 설교자가 청중에게 고난을 극복할 대안이나 답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가 말하는 해결이란 하나님이 하실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학적 반전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라

234) 류응렬, “새 설교학: 최근 설교학에 대한 개혁주의적 평가”, 신학지남사, 「신학지남」 72 (2005):200-01.

235) Chapell, *Christ-centred preaching*, 105-06.

236) Lowry, *The sermon*, 66-70.

237) Wilson, *The Four Pages of the Sermon*, 156-57.

238) Wilson, *The Four Pages of the Sermon*, 161.

239) Wilson, *The Four Pages of the Sermon*, 158-161.

240) Donald R. Sunukjian, *Invitation to Biblical Preaching: Proclaiming Truth with Clarity and Relevance* (Grand Rapids, MI: Kregel Publications, 2007), 12.

면, 해결은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다. Johan H. Cilliers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설교는 청중의 영안을 열어 그들로 하나님 나라에 새롭게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것이다.²⁴¹⁾ 청중은 갈등과 심화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이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불가능의 영역임을 깨닫지만, 신학적 역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통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한다. 이제 해결에서 설교자는 청중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선포한다. 그런 점에서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가 제안하는 해결은 다음의 두 가지 성격을 가진다. 첫째, 종말론적 성격을 가진다. 해결은 종말론적 교리나 명제들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약속들을 선포하는 것이다. 둘째로, 해결은 선포적인 성격을 가진다. 설교자는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대해 담대하게 선포한다.

(5) 적용(Application)

Lowry는 플롯이 열린 결말로 끝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연구가 제안하는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는 플롯의 마지막 단계로 적용을 추가하였다. 플롯에서 적용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교가 단순히 과거에 발생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객관적인 해설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이다. Dennis M. Cahill은 설교가 본문에 있는 문제로 시작하고, 복음 안에서 그것의 해결을 향해서 나아갔다면, 이제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⁴²⁾ 신약의 서신서의 논리를 빗대어 설명하자면, 설교는 역사 속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천명하는 직설법의 진술(indicative description)에 머무를 수 없고, “그러므로”(γὰρ)라는 접속사 이후에 등장하는 명령법의 적용(imperative application)까지 포함해야 한다.²⁴³⁾ 둘째로, 청중의 변화가 설교의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Bryan Chapell은 적용이 있는 설교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한다.²⁴⁴⁾ 설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즉, 설교는 청중을 보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있다.²⁴⁵⁾ 따라서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이유에 따라 플롯의 마지막 요소로 적용을 제시하는 바이다.

III. 나가는 글

본 연구는 고난 설교를 위한 설교학적 대안으로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는 고난 설교를 위한 하나의 설교학적 대안에 불과하지,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가 고난 설교에 적합한 유일한 성경적 설교라고 주장하는 것도 옳지 않다. 고난 설교를 위한 완전한 형식이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고난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잘 드러내고, 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설교학적 고민으로 인해 시작되었고, 연구자는 그 대안으로 전통적 설교학의 구속사적 설교와 신설교학의 내러티브 설교를 조화시킨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를 제안하였다.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문을 해석하기 때문에, 본문의 권위를 무시하고 전달에 치중하는 신설교학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한다. 구속사적 해석은 청중이 오늘날에도 고난을 겪는 신자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돕는다. 반면,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

241) Johan H. Cilliers, *The Living Voice of the Gospel: Revisiting the Basic Principles of Preaching* (Stellenbosch: Sun Press, 2004), 123.

242) Dennis M. Cahill, *The Shape of Preaching: Theory and Practice in Sermon Design* (Grand Rapids, MI: Baker Books, 2007), 56.

243) 류응렬, “바울의 설교를 통해 본 개혁주의 설교: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신학지남사*, 「신학지남」 71 (2004): 145.

244) Chapell, *Christ-centred preaching*, 54.

245) Sunukjian, *Invitation to Biblical Preaching*, 12.

가 가진 플롯은 설교에 연속성과 움직임을 부여하기 때문에, 딱딱한 명제나 정보만 전달하는 전통적 설교를 극복하도록 돕고, 청중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이끈다. 이처럼,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는 구속사적 설교와 내러티브 설교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개선하고 장점은 고수하면서 현대 설교학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해결하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는 청중에게 은혜에 합당한 적용을 플롯에 포함하여 신자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에 대한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를 성경의 다양한 장르에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성경의 각 장르의 특징들을 고려한다면, 더욱 풍성한 구속사적 내러티브 설교가 될 것이다. 둘째, 구속사 내러티브 설교가 고난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설교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구속사 내러티브 설교가 고난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설교를 위한 좋은 도구가 되리라고 기대한다.

참고문헌

- 류응렬. “바울의 설교를 통해 본 개혁주의 설교: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신학지남사. 「신학지남」 71 (2004): 142-61.
- _____. “새 설교학: 최근 설교학에 대한 개혁주의적 평가”. 신학지남사. 「신학지남」 72 (2005): 183-207.
- 박성환. “이상근 목사의 설교 분석: 사도신경의 연속 설교를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회. 「한국개혁신학」 36 (2012): 132-77.
- 이승진. “구속사 관점에 근거한 설교 목회”.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출판부. 「신학정론」 31 (2013): 127-60.
- _____. “구속사 내러티브를 구현하는 설교목회에 관한 연구”.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43 (2017): 79-112.
- 정창균. “효과적인 설교 전달과 설교 형식의 다양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출판부. 「신학정론」 27 (2009): 291-321.
- Abrams, M. H. *A Glossary of Literary Terms*. 최상규 역. 『문학용어사전』. 서울: 예림기획, 1997.
- Akin, David L, et al. *Text-driven Preaching: God's Word at the Heart of Every Sermon*. Nashville, TN: B & H Academic, 2010.
- Allen, Ronald J. *Patterns of Preaching: A Sermon Sampler*. St. Louis, MO: Chalice Press, 1998.
- Aristoteles. *De arte Poetica*. 나종일 역. 『정치학/시학』. 서울: 삼성 출판사, 1999.
- Balthasar, H. U. Von. *Theo-Drama: Theological Dramatic Theory. Volume I: Prolegomena*. trans. G. Harrison. San Francisco, CA: Ignatius Press, 1988.
- _____. *Theo-Drama: Theological Dramatic Theory. Volume II: The Dramatis Personae: Man in God*. trans. G. Harrison. San Francisco, CA: Ignatius Press, 1990.
- Barthes, Roland & Heath, Stephen. *Image, Music, Text*. Londo: Fontana Press, 1977.
- Cahill, Dennis M. *The Shape of Preaching: Theory and Practice in Sermon Design*. Grand Rapids, MI: Baker Books, 2007.
- Campbell, Charles L. *Preaching Jesus: The New Directions for Homiletics in Hans Frei's Postliberal Theology*. Grand Rapids, MI: W.B. Eerdmans Pub, 1997.

- Chapell, Bryan. *Christ-centred preaching: Redeeming the expository sermon*.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5.
- Cilliers, Johan H. *The Living Voice of the Gospel: Revisiting the Basic Principles of Preaching*. Stellenbosch: Sun Press, 2004.
- _____. *God for us: An analysis and assessment of Dutch reformed preaching during the apartheid years*. Stellenbosch: Sun Press, 2006.
- Craddock, Fred B. *Preaching*.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10.
- Duvall, J. Scott & Hays, J. Daniel. *Grasping God's word: A Hands-on Approach to Reading,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Bible*.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5.
- Fesko, J. V. "Preaching as a Means of Grace and the Doctrine of Sanctification: A Reformed Perspective." *American Theological Inquiry* 3 (2010, Jan) 35-54.
- _____. *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Interpreting and Preaching Biblical Literature*. Grand Rapids, MI: W. B. Eerdmans Pub, 1988.
- Greidanus, Sidney. *Sola Scriptura: Problems and Principles in Preaching Historical Texts*. Eugene, OR: Wipf & Stock, 2001.
- Long, Thomas G. *The Witness of Preaching*.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6.
- Lowry, Eugene L. *Doing Time in the Pulpit: The Relationship between Narrative and Preaching*.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85.
- _____. *How to Preach a Parable: Designs for Narrative sermons*.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89.
- _____. *The Sermon: Dancing the Edge of Mystery*.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7.
- _____. Eugene L. *The Homiletical Plot: The Sermon as Narrative Art Form*.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 MacIntyre, A. C.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1.
- Mathewson, Steven D. *The Art of Preaching Old Testament Narrative*. 이승진 역. 『청중을 사로잡는 구약의 내러티브 설교』. 서울: CLC, 2004.
- Nelson, Paul. *Narrative and Morality: A Theological Inquiry*.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87.
- Poythress, Vern S. *God-Centred Biblical Interpretation*.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99.
- Ricoeur, Paul. *Time and Narrative*.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 Robinson, Haddon W. "Homiletics and hermeneutics." in *Making a Difference in Preaching*. eds. Scott Gibson.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1999.
- _____. *Biblical Preaching: The Development and Delivery of Expository Messages*.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14.
- Ruf, F. J. "The Consequences of Genre: Narrative, Lyric, and Dramatic Intelligibilit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62 (1994) 799-818.
- Seo, Jima & Meylahn, Johann-Albrecht. "Redemptive-Historical Narrative Preaching As a Homiletical Alternative for Preaching on Suffering." *Hts Teologiese Studies* 77 (2021) 1-8.
- Steinmann, Andrew & Eschelbach, Michael. *Called to be God's People: An*

-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Eugene, OR: Wipf & Stock, 2006.
- Stott, John R. W. *The Preacher's Portrait*. London: Tyndale Press, 1961.
- _____. *I Believe in Preaching*. 원광연 역. 『설교론』.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5.
- Sunukjian, Donald R. *Invitation to Biblical Preaching: Proclaiming Truth with Clarity and Relevance*. Grand Rapids, MI: Kregel Publications, 2007.
- Vanhoozer, Kevin J. *The Drama of Doctrine: A Canonical-Linguistic Approach to Christian Theology*.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5.
- Verhey, Allen. *The Great Reversal: Ethics and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 W. B. Eerdmans Pub, 1984.
- Vos, Geerhardus Johannes. *Biblical theology: Old and New Testaments*. Eugene, OR: Wipf & Stock, 2003.
- Webster, Noah. *Webster's New Collegiate Dictionary*. Springfield, MA: G. & C. Merriam Company, 1976.
- Wilson, Paul S. *The Four Pages of the Sermon: A Guide to Biblical Preaching*.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9.
- _____. *God-Sense: Reading the Bible for Preaching*.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1.

Abstract

A Homiletical suggestion for preaching on suffering: Redemptive-historical narrative preaching

Seo, Ji-Ma

Humans live by experiencing various types of sufferings. Suffering is inevitable as a Christian and must go through. For this reason, it is evident that one of the topics of great interest in congregations is the question of suffering. However, compared to various theological studies on suffering, it is difficult to find a homiletical study on suffering. This study aims to present redemptive-historical narrative preaching as a homiletical strategy for preaching on suffering. Redemptive-historical narrative preaching can be a homiletical alternative for preaching on suffering because it improves the weaknesses of the traditional homiletic and new homiletic and further developing their strengths. In this study, first, the researcher will identify the main problems of preaching on suffering. Second, the researcher will discuss redemptive-historical preaching and narrative preaching that are the foundation of redemptive-historical narrative preaching. Finally, the researcher shall propose and explain the redemptive-historical narrative preaching in detail.

Key Words: preaching on suffering, redemptive-historical preaching, narrative preaching, περιπέτεια (reversal), God-centered big idea.

기 총 회

<편집부 회칙 개정안>

2021.09.11. (210:00) 한국설교학회 임원회 내용

- 3조 2항: “편집위원은 학술 연구 실적이 뛰어나거나 학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를 “편집위원은 학술 연구 실적이 뛰어나거나 학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임원회의 동의 재청을 거쳐 결정한다.”로 수정하기로 하다.

- 제4조: “편집위원장은 학술 연구 실적이 뛰어나거나 학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 회원 중에서 한국설교학회 임원회가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를 “편집위원장은 학술 연구 실적이 뛰어나거나 학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 회원 중에서 한국설교학회 임원회의 동의 재청을 거쳐 결정한다.”로 수정하기로 하다.

- 8조: 삭제하기로 하다.

(내용: “논문 게재 심사 이외의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모든 사항은 회장의 승인을 거쳐 발효한다.”)

<한국설교학회 회칙 개정안>

- 제6조에서 임원 구성에 대한 조정을 모색하기로 하다.

제안: 회장 1인, 선임부회장 1인, 총무 1인, 협동총무(약간명), 서기(정 1인/ 부 약간명), 회계(정 1인/ 부 약간명)

기타 안건

■ 메모 ■